7일 Market Index
코스피 6995.39 (+308.18)
코스닥 822.19 (+8.69)
금리(국고채 3년) 3.900 (+0.016)
환율(원·달러) 1342.75 (-7.65)

metro 경제

대한민국 바른배달 땡겨요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사업 정상화·폐업·재창업·취업 돕고, 성실 상환 인센티브

'벼랑 끝' 소상공인 경제복귀 지원

상반기 자영업자 폐업 62.4만 건
소상공인 많은 6대업종 비중 커
폐업자 68% 채무, 평균 8500만원

정부와 금융권이 '위기의 자영업자' 구하기에 나선다.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서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갚지 못한 빚을 정리하고 사업정상화나 폐업, 재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소상공인에는 금리인하, 전용대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벼랑 끝 소상공인**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영업 폐업자 건수는 62만4000건에 달한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0년 이래 반기 기준 가장 많다. 앞서 지난해 폐업 건수는 97만6000건으로 집계돼 코로나19에 따른 지원이 종료된 2023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올 상반기 폐업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률(가동사업자 수 대비 폐업자 수)은 8.64%였는데, 같은 기간 소상공인 비중이 큰 6대업종(제조·도매·소매·음식·숙박·서비스)의 폐업률은 11.08%를 기록했다. 특히 소매업(15.40%)과 음식점(15.14%)의 폐업률이 높았으며, 폐업 사업장 가운데 49.2%는 3년 이상 영업한 사업장이었다.

지난해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 가운데 68.5%는 빚이 있었고, 평균 부채는 사업장당 약 8500만원에 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이었던 지난 2020~2023년 동안 공급된 개인사업자 대출은 약 359조원이다. 이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약 155조원의 대출이 아직까지 빚으로 남았다. 지난해 9월부로 대출 만기연장 조치 및 상환유예가 종료됐고, 최근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 **정부, 경제활동 복귀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한계에 달한 만큼,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나선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금리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운데,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3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社 告

메트로경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

AX가 여는 혁신의 물류·모빌리티

물류와 모빌리티 산업에서 AX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AI는 물류와 모빌리티의 생산성, 효율성, 운영방식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탄소중립 규제는 물류·모빌리티 분야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AX는 비용, 효율, 탄소중립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등 여러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라는 허들도 뛰어넘어야합니다.

AI→빅데이터→이동의 최적화→에너지 절감→탄소감축→지속가능한 미래 물류·모빌리티 완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고 미래를 준비하기위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기위해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라는 주제로 11번째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 행 사 명 :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주 제 :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
◆ 일 시 : 2026년 9월16일(수) 14~17시(내빈 티타임 13시30분~14시)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 등 록 :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문 의 : 물류&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metro

코스피 7000 회복 눈앞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08.18포인트(4.61%) 오른 6995.39로 장을 마친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8.69포인트(1.07%) 오른 822.19로 장을 마쳤다. /뉴시스

'폴더블 아이폰' 공개 임박 삼성전자와 본격 경쟁구도

애플, 9일 미국서 신제품 공개 행사
올해 애플 폴더블 점유율 25% 전망
삼성D·LG이노텍 등 부품 수혜 예상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 공개가 임박하면서 폴더블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완제품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을 벌이게 됐지만, 전체 시장 확대에 따른 판매 증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 등 부품업체들은 애플향 공급 확대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연다.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의 폴더블폰 시장 진입으로 관련 시장도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이 시장 진입 첫해인 올해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 25%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38%로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글로벌 폴더블폰 출하량은 올해보다 3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폴더블 시장에서 애플과 직접적인 경쟁을 앞두고 있다. 2019년 첫 갤럭시 폴드를 출시한 이후 8세대에 걸쳐 폴더블 제품을 선보였고, 올해는 갤럭시 Z 폴드8·폴드8 울트라·플립8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진입으로 폴더블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 전체 시장 확대가 삼성전자의 판매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애플의 첫 폴더블폰에 OLED 패널을 공급하며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7.8인치 내부 디스플레이와 5.5인치 외부 디스플레이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애플 폴더블용 OLED 소량 양산을 시작했고 이달부터 생산량을 월 100만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더블 시장 확대에 대비한 생산능력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지난달 아산2단지 신공장(A7)의 양산 제품과 관련해 폴더블 패널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 A7의 완공 목표 시점은 2028년 초다. 폴더블 OLED는 반복해서 접고 펴는 구조에 맞춰 내구성을 확보하고 화면 주름을 최소화해야 해 일반 스마트폰용 OLED보다 기술 난도가 높다.

LG계열에서는 LG이노텍이 애플의 폴더블 공급망에 참여한다. LG이노텍은 폴더블 아이폰을 포함한 신형 아이폰 시리즈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더블 아이폰에는 4800만 화소 광각·초광각 등 2개의 후면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칩용 무선주파수 패키지형 시스템(RF-SiP)도 공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면에 계속〉/차현정 기자 hyeon@

주주단체, 삼성전자 이사회·노조 집행부 추가 고발

"이익처분 권한, 주주총회에 있어"
주주운동본부, 성과급 배임 혐의

주주단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문제 삼아 이미 지급된 성과급까지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과 연동한 성과급을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침을 내놓자 삼성전자 이사회와 노조 집행부까지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7일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삼성전자 이사회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집행부를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기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이사 고발 건과 공동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통해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동부의 이번 지침으로 기존 고발의 근거가 한층 분명해졌다고 보고 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경영진이 결정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며 주주총회 승인 없이 이를 임직원에게 배분한 것은 임무 위배라는 주장이다. 이에 이미 지급된 성과급에 대한 민사 소송도 추진한다.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올해 초 지급한 초과이익분배금(PS)과 삼성전자가 디바이스경험(DX)부문과 고객서비스(CSS)사업팀 임직원에게 지급한 자사주가 대상이다.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성과급 협약은 기존 형사 고발 대상이다..

대안으로는 영업이익 대신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 재원을 정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방식을 제시했다. 기존 협약을 무효화하고 이미 지급된 성과급까지 주주총회에서 추인받으면 민사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 "김민석 연설 李 찬양 '정권 용비어천가'…독주 막아내겠다"
▲與전략기획위원장, 언행 주의령…"호르무즈 정부 입장 정해진 바 없어" /사진 뉴시스
▲조국, "李대통령, 정책·정치 문제 입장 밝혀야…與, 합당 사과가 먼저"
▲한동훈, "김승원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승인해 달라"
▲용혜인, 성평등부 핵심 법안 잇따라 반대·기권…과거 표결 보니
▲교육감들, 교육부 '교부금 10.1% 증가' 정면 반박

아모레퍼시픽그룹, 매출 15조 '뉴뷰티' 비전 달성 속도낸다

창립 81주년 기념식

해외시장 중심 상반기 실적개선
AX 등 '뉴뷰티' 5대 주요과제 탄력
서경배 회장 "새로운 상품·문화 주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이 창립 81주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

아모레퍼시픽그룹이 브랜드 포트폴리오 강화, 해외 시장 다변화 등으로 결실을 맺으며 '뉴뷰티'를 실현한다. 국내 시장에서의 K뷰티 리더십을 기반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핵심 시장에서도 고성장하고 있다.

7일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용산 그룹 본사에서 창립 8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전 세계 법인에 국어, 영어, 중국어 등 3개 언어로 생중계된 가운데,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지난 81년의 역사를 이끌어 온 힘은 고객중심과 개척정신"이라며 "전 세계 고객에게 새로운 아름다움의 기준을 제시하는 회사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해 창립 80주년을 맞으며 '뉴뷰티' 비전을 선포했다. 오는 2035년까지 매출 15조원을 돌파하고 '글로벌 대표 뷰티&웰니스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장기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5대 주요 과제로 ▲글로벌 핵심 시장 집중 육성 ▲통합 뷰티 솔루션 강화 ▲바이오 기술 기반 항노화 개발 ▲민첩한 조직 혁신 ▲인공지능 기반 업무 전환 등 5대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지속해 온 연구개발을 집약한 피부과학으로 피부 장수를 실현하는 '홀리스틱 롱제비티'에 중점을 두며, 스킨케어는 물론, 헤어 등 웰니스 영역 전반에서 경쟁력을 갖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은 2조3116억원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설화수·헤라·라네즈·에스트라 등을 포함하는 화장품 사업이 2조68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체 매출의 89.5%를 차지하며 견조한 외형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미쟝센·려·해피바스·메디안 등을 포함한 헤어 앤 뷰티 사업은 2433억원의 매출을 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의 절반 수준을 상회했다. 해당 사업의 연간 매출은 2024년 4073억원에서 2025년 4584억원으로 약 13% 커졌다.

아울러 아모레퍼시픽그룹은 해외 사업에서 수익성 기반을 다졌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1분기 해외 매출은 4971억원, 영업이익은 567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1.4% 수준이다. 또 2분기 해외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516억원, 영업이익 718억원으로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13.0%로 끌어올렸다.

서구권 시장에서는 폭발적인 약진했다. 올해 상반기 해외 누적 매출 중 37%는 3851억원의 미주 매출이다. 미주를 최대 해외 거점으로 확보한 가운데 EMEA(유럽·중동) 지역 역시 상반기 누적 매출 1364억원을 거뒀다.

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 라네즈, K더마 브랜드 에스트라가 브랜드 파워를 확산하고 있다. 라네즈는 워터뱅크 UV 베리어 선스크린, 립 글레이즈 등 신제품을 내놓으며 선전을 이어갔다. 더마 브랜드 에스트라는 대표 제품인 '아토베리어365 크림'을 앞세워 미주에서 세 자릿수 성장을 보였고, EMEA에서도 유명 뷰티편집숍 세포라 등에 입점하며 입지를 구축했다.

과거 해외 매출의 큰 축이었던 중화권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줄이는 동시에 채널 효율화 및 매장 정비로 체질 개선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은 2394억원이며 그 비중은 22.8%이다. 고급 헤어 관리 브랜드 '려'가 실적 방어 역할을하고 있다. '자양윤모 퍼퓸' 제품군 등 고가능성 제품이 현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서경배 회장은 "디지털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유통 판도가 재편됐고 K컬처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 경쟁은 치열해지고 변화의 속도는 빨라졌다"며 "시대에 맞는 과제를 빠르게 실행해 고객 일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상품과 루틴, 문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고차입 주택취득가구, 금리 상승시 신용위험 확산 가능성

금리 1%p 오르면 1년뒤 연체율 0.81%↑
한명이 연체하면 다른 가족까지 영향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크게 늘려 집을 산 가구는 금리가 1%포인트(p) 오르면 1년 뒤 연체율이 0.81%p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가구에서 한 명이 연체하면 12개월 이내 다른 가족도 연체할 가능성은 기존 주택보유가구의 1.9배에 달했다.

7일 한국은행 발간한 BOK 이슈노트 '가구DB를 이용한 가계부채 리스크 평가'에 따르면 연구진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정보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구를 식별해 약 206만가구의 부채·자산·소득·지출을 추적할 수 있는 월별 자료를 구축했다. 전체 가구 모집단의 9.2%에 해당한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연구진은 2023~2025년 주택을 취득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은 가구 가운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폭이 상위 10%인 가구를 '고차입 주택취득가구'로 분류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리가 1%p 오르면 이들 가구의 12개월 뒤 연체율은 0.81%p 상승했다. 기존 주택보유가구의 상승 폭 0.52%p와 과도한 부채조달을 동반하지 않은 일반 주택취득가구의 0.64%p를 모두 웃돌았다.

고차입 주택취득가구에서 가구원 한 명이 연체한 뒤 12개월 이내 다른 가구원도 연체할 가능성은 8.8%였다. 일반 주택취득가구는 5.4%, 기존 주택보유가구는 4.6%였다. 과도한 차입에 따른 신용위험이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전체 차입가구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평균 연체율은 기존 3.35%에서 0.27%p 높아졌다.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법인대표 가구는 금리 상승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기존 연체율은 각각 5.45%, 4.38%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으며 금리 상승 이후 각각 0.48%p, 0.40%p 더 높아졌다. 자영업자·법인대표 가구도 기존 연체율이 4.47%였고 상승 폭은 0.32%p로 나타났다.

부채가 소비를 억누르는 기준점도 확인됐다.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6%를 넘으면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25년 부채보유가구의 11.1%가 이 기준을 초과했다. 소득 1분위에서는 해당 가구 비중이 2021년 11.4%에서 지난해 14.5%로 상승했다.

연구진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시 취약가구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선별적인 정책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삼성그룹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AI·바이오 등 미래사업 인재 선발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19개 관계사의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선다. 국내 주요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정기 공채 제도를 이어가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사업을 이끌 청년 인재 확보를 집중 선발한다.

삼성은 오는 8일부터 202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채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생명,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삼성E&A,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의료원, 삼성웰스토리 등 19개 관계사가 참여한다.

지원자는 8일부터 15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를 통해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9월 직무적합성 평가를 시작으로 10월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11월 면접,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된다.

소프트웨어(SW) 직군 지원자는 GSAT 대신 실기 방식의 SW 역량 테스트를 치른다. 디자인 직군은 GSAT 없이 디자인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8월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은 1957년 국내 기업 최초로 신입사원 공채를 도입한 이후 올해까지 70년째 제도를 이어오고 있다.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LG 등 국내 4대 그룹 가운데 정기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삼성뿐이다. 1990년대 외환위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오일쇼크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 속에서도 공채를 지속해왔다. /차현정 기자 hyeon@

›› 1면 '폴더블 아이폰 공개 임박'서 계속

"국내업체 수익개선 기대"

LG디스플레이는 애플향 OLED 공급을 확대하면서 차세대 제품에 대응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유비리서치는 올해 전체 아이폰용 OLED 수요 2억6470만장 가운데 LG디스플레이가 8224만장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는 폴더블을 비롯한 새로운 OLED 기술을 연구하고 사업화 시점에 맞춰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애플은 글로벌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만큼 폴더블폰 출시가 시장 확대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 등 국내 업체들은 판매량 증가에 따른 부품 수요 확대뿐 아니라 애플의 품질 기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술 고도화와 수익성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연준, 물가진단 엇갈려… 美 금리 '안갯속'

물가 둔화 지속성 등 변수 작용

미국 고용 반등이 경기 급랭 우려를 덜었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부의 물가 진단은 엇갈리고 있다. 생산성이 인건비 상승 부담을 완충하는 가운데, 최근 물가 둔화의 지속성과 가격 상승의 확산 범위가 9월 금리 판단의 핵심 변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연준은 오는 15~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현재 연 3.50~3.75%인 정책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미 노동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8월 비농업 고용은 전월보다 16만2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4.1%로 유지됐고, 6·7월 고용 증가분도 합계 5만5000명 상향 수정됐다.

전체 순증가분의 62.3%는 외식업과 지방정부 교육에 집중됐다. 특히 지방정부 교육의 증가는 전달 감소를 상당 부분 되돌린 것이다.

인건비 압력은 생산성에 따라 달라진다. 미 노동통계국이 지난 3일 발표한 2분기 비농업 부문 노동생산성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생산물 한 단위에 드는 인건비인 단위노동비용은 같은 기간 1.4% 올랐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이 생산하면서 생산물당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8월의 비용 압력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지만, 생산성 개선이 임금 상승에 따른 가격 전가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7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올라 연준의 2% 목표를 웃돌았다.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3.3%였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지난달 28일 잭슨홀 연설에서 임금 상승률이 오랫동안 미래 물가를 예측하는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PCE 구성 품목의 49%에서 최근 6개월 가격 상승률이 연율 3%를 넘었다는 점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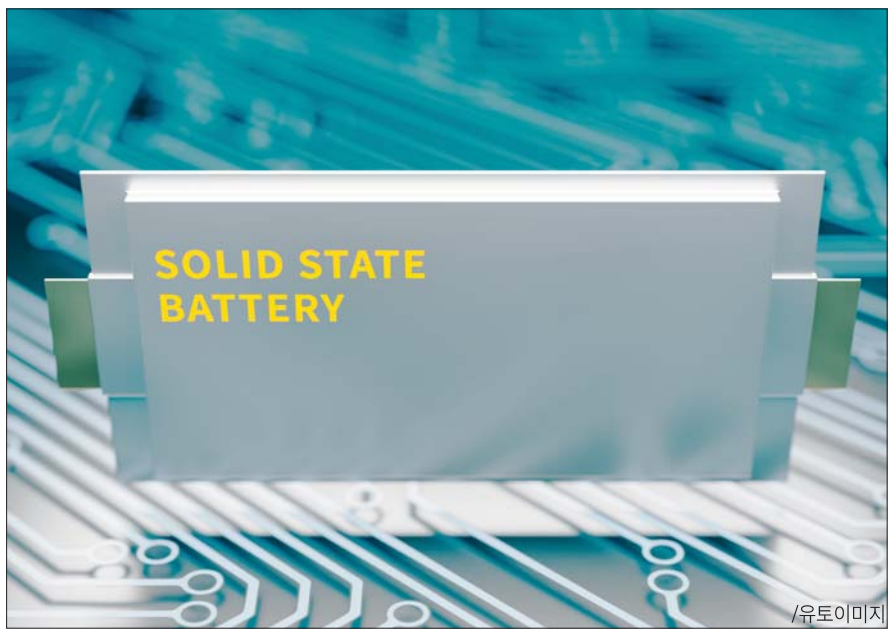
그는 "기조적 물가 상승률이 목표를 향해 충분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특정 금리 결정을 약속하지 않았다.

고용 발표 전날인 지난 3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한 근원 물가 상승률의 둔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흐름도 물가 상승률이 2%로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봤다.

월러는 8월 물가에서도 개선이 이어지면 동결을 지지하되, 둔화가 반전하면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비용의 안정 신호와 최근 물가 둔화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둘지에서 워시와 강조점이 다른 셈이다. /김주형 기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성큼… K-소재업계, '기술선점' 속도

에코프로비엠, 고체전해질 양산 채비
포스코퓨처엠, 양·음극재 기술 확대
엘앤에프, 대면적 전극 기술 고도화
삼성SDI, 2027년 전고체 양산 추진



/유토이미지

국내 배터리 소재업체들이 미래 성장동력인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소재 시장은 배터리 제조사들의 양산 확대와 함께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 업체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는 시장 규모가 2026년 2억8766만달러(약 3859억원)에서 2034년 115억9740만달러(약 15조5500억원)로 연평균 58.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코프로비엠은 4년 전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개발에 착수한 뒤 공정과 조성을 최적화해 현재 연산 40톤 규모의 파일럿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다. 독자적인 공정 기술을 확보했으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생산라인 설계도 마쳤다.

기존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을 활용한 전고체용 양극재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기존 삼원계 양극재 생산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을 최적화해 양산 전환 기간을 단축하고 고체전해질과 양극재를 함께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제시한 2027년 일정이 삼성SDI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에 맞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이 삼성SDI에 NCA 양극재를 공급해 온 만큼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협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삼성SDI는 2027년 하반기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등 피지컬 인공지능(AI)용 제품에 적용한 뒤 전기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포스코퓨처엠은 휴머노이드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차세대 산업에 적용할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전고체 배터리 기업 팩토리얼과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투자를 단행하며 소재 개발을 위한 협력 기반을 넓혔다. 팩토리얼과 진행한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샘플 테스트에서는 포스코퓨처엠 제품이 다른 소재업체 제품보다 출력 특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협력 범위는 실리콘 음극재로도 확대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전고체 배터리 등에 적용되는 실리콘 음극재의 양산 기술을 확보했으며 시장 수요와 사업 환경을 고려해 2028년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자체 개발한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계 음극재보다 4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실리콘 음극재는 통상 흑연계 음극재와 섞어 사용하는데 포스코퓨처엠은 실리콘 음극재의 혼합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인 시험에서도 1000회의 충·방전 이후 초기 용량의 80% 이상을 유지했다.

엘앤에프는 전고체 배터리용 고성능 양극 전극과 고용량 배터리셀에 적용할 대면적 전극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생산비가 높아 초기에는 로봇과 드론 등 가격 민감도가 낮은 소형 고부가 제품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생산 규모 확대와 원가 절감이 진행되면 전기차로 적용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소재 기술 고도화와 함께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다른 양산 공정을 구축하는 것도 상용화를 위한 과제로 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체전해질이 액체 전해질과 분리막을 대신하는 만큼 이후 조립공정에서는 설비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 시장은 크지 않지만 향후 성장에 대비해 소재 기술을 미리 확보하고 개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현대위아, 방산 떼고 미래사업 집중… 열관리·로봇에 '승부수'

연매출 4000억 방산 로템 이관 추진
전기차 열관리 글로벌 톱3 목표
자동화 매출 2028년 4000억 확대
미래차·스마트팩토리 중심 전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현대위아의 모습. /현대위아

현대위아가 지난 8월 19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연구소에서 개최한 '주차솔루션 고객 초청 행사'에서 주차로봇이 SUV 차량을 옮기는 모습. /현대위아

현대위아가 방산사업을 현대로템에 이관하고 통합 열관리 시스템과 미래 모빌리티 부품,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낸다. 수익 기반이 탄탄한 방산을 내려놓는 대신 전기차와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 미래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현대위아의 방산 특수사업부를 연내 현대로템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사업부는 K2 전차 주포와 K9 자주포 포신 등을 생산하며 연간 매출 규모는 약 4000억원이다. 이관이 완료되면 그룹 방산사업은 현대로템 중심으로 일원화되고 현대위아는 열관리와 로봇 등 미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현대위아의 기존 모빌리티 부품 사업은 이미 회사 매출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4년 모빌리티 부문 매출은 7조5966억원으로 전체의 92.9%를 차지했고 영업이익은 1919억원을 기록했다. 2025년에는 매출이 7조8323억원으로 3.1% 증가했다. 회사 전체 영업이익은 2024년 2188억원에서 2025년 2044억원으로 6.6% 감소했지만, 차량부품은 모듈·구동부품 판매 증가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어갔다.

현대위아의 성장축은 열관리다. 현대위아는 통합열관리모듈(ITMS), 데카밸브, 쿨링모듈, 슬림 HVAC 등 전기차의 배터리와 전장부품, 실내 공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CES 2026에서 탑승자의 체온과 움직임을 인식하는 분산배치형 HVAC를 공개하고 차세대 차량 실내 공간에 대응하는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위아는 통합 열관리 분야에서 글로벌 톱3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보틱스 분야도 사업 전환의 핵심이다. 현대위아는 물류로봇과 협동로봇, 주차로봇, 무인지게차 등을 묶은 'H-모션'을 앞세워 제조·물류 자동화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자동화 관련 매출은 2025년 약 2500억원 수준으로, 2028년 4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HMGICS와 미국 HMGMA 등 현대차그룹 생산거점에도 물류·주차로봇을 공급하며 운용 경험을 쌓고 있다.

현재 현대위아는 내년 5월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 완전 무인으로 상·하역이 가능한 무인지게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라이다·비전 센서와 안전 스캐너를 활용해 공장 내 이동과 작업을 자동화했으며, 디지털 트윈 기술로 최적 주행 경로를 구현했다. 최대 4톤을 적재하고 시속 6.5㎞로 주행한다. 현대위아가 사업 재편에 나선 것은 단순 방산 매각을 넘어 저수익 자동차 부품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열관리·로봇 등 고성장 기술사업으로 체질을 바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열관리 수주와 로봇 외부 고객 확보가 사업 재편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급변하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 대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술력"이라며 "현대위아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글로벌 톱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장기연체 채권 감면·소각…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내년까지 신청

›› 1면 '벼랑 끝 소상공인… '서 계속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점포 모습. /뉴시스

이번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가운데 지난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시작돼 3년 이상 연체 중인 채권이다. 정부는 기존 7년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했던 새도약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연체 채권을 감면 또는 소각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채무조정 내용은 오는 4분기 중 공개한다.

기존에 운영했던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확대 편성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지원 대상을 2025년 6월 이전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내년까지 신청을 받는다.

새출발기금은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감면 및 원금감면을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출범 당시에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해부터 전체 사업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소상공인의 폐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도 '희망리턴 패키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153억원을 편성했다. 희망리턴 패키지는 점포정리 비용과 잔여대출상환 비용 등을 이유로 폐업을 미루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지원하고, 이후 재창업이나 취업 등 경제활동 복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성실상환자 부담 완화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소상공인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진공은 성실상환자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대출을 비롯한 정책자금 신청 시 성실상환 우대금리 0.3%포인트(p)를 차감한다. 또한 성실상환자는 정책자금 이용 제한 횟수를 5년 내 3회에서 4회까지 확대해 부여하며, 연 4%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에 대한 신청 자격도 부여한다.

신복위는 개인채무조정 변제금을 성실상환 중에 있는 채무조정자를 대상으로 일시완제 추가감면, 추가 이자율 인하 등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채무조정자나 채무조정 이후 변제완료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보증이나 소액대출 등 저금리 정책상품도 공급한다.

은행 등 민간 금융권에서도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채무 부담을 완화한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올 상반기부터 상생금융 확대 차원에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성실상환 중인 차주들이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론'을 출시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첨단 벤처 키우고 취약층 빚 줄인다… 5년간 108조 공급

NH농협금융이 금융의 무게중심을 가계여신과 이자수익에서 기업과 지역, 농산업으로 옮기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생산적·포용금융에 108조원을 공급하는 'NH상생성장 프로젝트' 아래 올해 상반기 14조89억원을 공급해 연간 계획의 72.8%를 이미 채웠다. 전국 1200개 이상 사무소와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캐피탈의 역량을 잇는 '원 펌(One-Firm)' 전략이 실행 축이다. 농업·농촌과 지역기업부터 첨단전략산업까지 자금 공급 대상을 넓히는 동시에 금융취약계층에는 금융 접근과 비용 완화, 신용 회복을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❶

❷

❸

❹

❶ 서울 서대문 NH농협금융 전경. ❷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왼쪽 일곱번째)과 생산적·포용금융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7월30일 서울 종로구 NH농협타워에서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지역밀착금융 계획을 점검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❸ 지난 8월 28일 NH투자증권은 농협중앙회 창업농지원센터와 함께 'NH투자증권과 함께 하는 라이브커머스'를 개최했다. ❹ 지난 8월 27일 농협중앙회 청년농부사관학교 토마토반 졸업생 전원에게 고급 공구세트를 증정하였다. /NH농협금융

❺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

◆ 상반기 14조 공급…연간 목표 72.8% 달성

NH농협금융의 6월 말 기준 내부 추진 관리 집계에 따르면 상반기 생산적금융 공급 실적은 11조8658억원, 포용금융은 2조1431억원이다. 총 14조89억원으로 연간 계획 19조2504억원의 72.8%에 해당한다.

7일 NH농협금융에 따르면 생산적금융은 연간 계획 16조4717억원의 72.0%, 포용금융은 2조7787억원의 77.1%를 각각 채웠다. 생산적금융 실적에는 국민성장펀드 관련 실적 7630억원이 포함됐다. 국민성장펀드 관련 연간 계획은 2조원이다.

NH농협금융은 지난 1월 그룹 차원의 생산적금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별위원회는 모험자본·에쿼티, 투·융자 활성화, 국민성장펀드, 포용금융 등 4개 분과를 통해 계열사의 추진 상황과 신규 사업을 관리한다. 공급액 확대를 넘어 기업 발굴과 투자, 심사, 사후관리까지 그룹 차원의 실행체계를 갖추려는 조치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가계여신과 이자수익 중심 영업의 한계를 돌파하고 기업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간 계획 19.2조 중 72.8% 채워
동남권 기업에 10조 금융서비스
연내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첨단전략산업 육성 촉매제 기대
취약·청년층 금융생활 복귀 지원

◆ 1200개 지역망…첨단산업까지

NH농협금융이 내세우는 차별점은 지역에서 기업과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현장망이다. 지난 4월 경남 창원에 동남권 '해양·항공·방위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열고 은행·증권·손해보험·캐피탈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5년간 동남권 기업에 10조원 규모의 대출과 투자, 자산관리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계열사 자금을 모아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축도 넓히고 있다. NH농협금융은 연내 총 1조원 규모의 'NH 대한민국 상생·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인프라 투자에 특화한 1호 펀드 5000억원을 결성한 데 이어 기업금융 특화 모자형 펀드인 2호를 당초 1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증액해 9월 초 결성할 예정이다. 2호 결성이 마무리되면 1·2호 합계 규모는 9000억원이 된다.

NH-Amundi자산운용이 운용하는 2호는 NH농협은행·NH농협생명·NH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NH농협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의 내부자금으로 구성된다. 향후 자금의 60%는 중소·중견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한 크레딧·메자닌 등 모험자본에 투입하고, 40%는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직접·간접 투자에 배분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2호 펀드가 시장성 차입이나 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동시에 국민성장펀드 추진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산업과 기후금융은 NH의 정체성을 살린 생산적금융 사례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말 기준 4100억원 규모인 농식품펀드를 향후 5년간 최대 1조원으로 확대해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기업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지난 6월에는 전환금융 후보군 30건 이상을 검토해 농업·농식품·반도체 분야 3개 기업에 총 122억원을 공급하고, 적정성 판단 기준과 심사·사후관리 방안을 실제 여신 심사에 적용했다.

관건은 조성과 공급 계획을 실제 기업 투자로 연결하는 속도다. 2호 펀드는 아직 결성 전이고 동남권 10조원 공급도 5개년 계획이다. 펀드별 투자 건수와 집행액, 지역밀착금융의 수혜 기업이 구체화돼야 108조원 로드맵의 질적 성과도 가늠할 수 있다.

◆ 포용금융…대출에서 재기까지

포용금융은 대출 문턱을 낮추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취약계층과 지역 청년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금리를 낮추는 한편, 연체 이후에는 채무조정과 재기자금으로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구조다.

NH농협금융은 취약계층을 위한 'NH 대한민국하나로이음대출'과 지역 청년을 위한 'NH청년지역리턴대출'을 출시하고 서민금융상품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NH포용금융 우대금리'를 도입했다. 'NH신용회복파트너론'을 통해서는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1인당 100만원, 총 300억원 한도로 재기자금을 지원한다.

범농협 차원에서는 올해 총 9276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감면과 추심중단을 추진한다. NH농협은행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00억원을 특별출연해 마을기업 등 지역 기반 기업에 15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지역에서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보증과 대출, 채무조정까지 잇는 방식이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

이 회장은 "다른 금융회사보다 지역친화적인 농협금융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협금융 전 임직원이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새로운 챔피언십,
누가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될 것인가!

KB금융 골든라이프 챔피언십
GOLDEN LIFE CHAMPIONSHIP

2026.9.10 (목) - 13 (일)
블랙스톤 골프클럽 이천

주최 | KB금융그룹
주관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방송 | SBS Golf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골프의 역사를 만들어 온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이
2026년 'KB금융 골든라이프 챔피언십'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KB 금융그룹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제안… 野 "대통령 연임 불가부터"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
"개편,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여야협의체 등 野와 소통 예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적 관심사인 개헌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는 야당에 부동산 공급 확대 등 쟁점 현안을 두고 협의할 수 있다며 손을 내밀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5·18(광주 민주화 운동),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며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18을 인정할 것인가. 5·18을 모욕할 것인가. 김영삼 대통령을 승계할 것인가. 김영삼과 5·18을 부정하는 반역사와 한편이 될 것인가"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은 주로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개헌을 통해 분권형으로 개혁하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김민석 대표의 권력구조 개편 언급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을 앞두고 현지 일간지 르몽드와 진행한 서면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잘 분배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희생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명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구상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우려도 존재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입장을 내고 "개헌의 전제는 간단하다. 이미 몇 번이나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선언만 하면 된다"며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는 그 한 마디가 없으니 개헌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정말로 개헌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부터 설득해야 한다"며 "김민석 대표가 '연임 불가' 선언 받아오면, 개헌의 1등 공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민석 대표는 쟁점 법안이 다뤄지는 정기국회에서 야당과 적극 소통해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당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기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나아가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 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반도체 초과 세수로 정부가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을 야당이 '쌈짓돈'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원칙에 저도 100% 동의한다"며 "만약, 정부의 쌈짓돈처럼 쓴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약자나 청년을 위해 더 잘 쓰자는 것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진보든, 보수든, 진지한 문제 제기일 것"이라며 "여야가 의논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미래 대응기금의 사용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승원 청문회 앞두고 난타전… 신약 로비 의혹 쟁점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승원 "한동훈, 증인 출석하라"
한동훈, '청문위원으로 승인' 요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7일 자신을 둘러싼 '신약 로비' 의혹 등에 해명하며 연일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를 소명하라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의원은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증인이 아니라 청문위원으로 승인해달라고 요구하며 자신이 김승원 후보자가 내각에 입성하는 것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코로나 임상 승인 관련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과정에서 브로커 양 모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며 그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장에 명확히 표시돼 있다"며 "당시 수사가 진행됐던 시기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3년여 동안 10여 명의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탈탈 털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 결과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고 인정했고, 관련 식약처장이나 공무원 모두 다 무혐의를 받았다"며 "그런데, 한 의원은 이번엔 외압으로 저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됐다고 한다. 기소유예 당시 윤석열 정권이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었던 시기다. 어떻게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한 제가 검찰에 압력을 가해서 기소유예로 만들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자신이 몸 담았던 검찰과 법무부에서 외압을 받아 저에 대한 기소유예가 이뤄졌다는 것인데, 청문회에 꼭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한동훈 의원은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자신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을 두고 "조정식 국회의장 등 관계자들에게 공식으로 요청드린다. 저를 김승원 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 승인해달라"고 했다.

한 의원은 "만약 (청문회가) 열린다면 제가 청문위원으로 (김 후보자의) 공직자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고) 임시정부 이래 최초의 전과자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이재명정부 경제정책 국민 61% '부정평가'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특히 경제 분야 중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최근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부동산 정책에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리얼미터가 더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18세 이상 506명에게 '현 정부 경제 정책 평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0%로, 긍·부정 간 격차는 25.1%포인트(p)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및 주거 ▲주식 및 자본시장 ▲물가 및 민생경제 ▲산업 및 경제성장 등 4개 분야에서 가장 부정평가가 높았던 건 '부동산 및 주거'(65.7%)였다. 그 뒤로는 주식 및 자본시장(61.7%), 물가 및 민생경제(61.2%), 산업 및 경제성장(59.0%)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4개 분야 모두 부정평가가 60% 안팎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는 '주택 전월세 가격 안정'이 3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24.5%), 대출 및 가계부채 관리(21.1%), 부동산 세제 개편(19.0%) 순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의 안정과 거주할 주택을 공급하는 데 우선적으로 수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한 주택 전월세 시장 영향에 대해선 '시장 전반에 걸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39.3%)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부 지역 및 일부 주택의 전월세 가격만 상승할 것'(29.3%)이란 응답이 뒤를 이었다. '투기 수요를 줄여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7%에 그쳤다.

/서예진 기자

개혁신당, 비대위 체제로 쇄신안 마련

이번주 전체 당원 찬반투표

개혁신당은 7일 전당대회 개최 대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주 중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개혁신당은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로 지도부가 공백 상태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개혁신당이 비상 상황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비대위를 구성해 보다 파격적인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전당대회도 고려했지만 지난주 시도당 연석회의 및 당내 의견 수렴을 한 결과, 비대위 구성에 의견이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을 수습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비대위를 통한 조속한 수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고 당내에서 폭넓은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현행 개혁신당 당헌에는 비대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이 없다. 천 권한대행은 "현행 개혁신당 당헌에는 비대위 설치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아 당헌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요한 개정사항이므로 전(全) 당원을 대상으로 '비대위원회 설치 당헌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찬반투표는 모바일 K-보팅 시스템을 이용해 이번주 중 실시된다.

/서예진 기자 syj@

'13가지 비위 의혹'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

경찰 "증거인멸 우려"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전직 보좌진 인사상 불이익 요구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오후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김 의원의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차남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취업 청탁 및 영향력 행사 ▲21대 총선 당시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의혹 ▲배우자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관련 경찰 수사 무마 의혹 ▲쿠팡에 전직 보좌진 인사상 불이익 요구 ▲강선우 무소속 의원 1억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 의혹 등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으며, 지난 4월까지 김 의원을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월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진 김병기 의원을 '제명' 징계 처분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30일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19일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탈당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대한민국은 내일도 맑음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의 본분을 다하여
개인과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 벤처모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생태계 구축
- 지역균형발전 지원
- 청년·취약계층 재도약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부대출 공급 확대
- 연체 차주 재기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美 '클래리티법' 입법 임박?… 가상자산 가격 연일 상승세

〈가상자산 중복규제 가능성 해소 법안〉

비트코인 3일째 장중 8만달러 넘겨
한 달 간 가격 상승폭 24.5% 달해
이더리움32%, 바이낸스 30% 상승
'클래리티법' 15일 美 상원서 표결
불발돼도 '대체법안' 시행 가능성

비트코인 가격이 1억1000만원선을 회복한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연일 상승세다. 미국 '클래리티법'의 입법이 임박했다는 관측으로 정책적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의 투자심리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 BTC·ETH 등 가상자산 급등

7일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 6일 정오께 1BTC당 7만 9916.96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과 비교해 0.41% 상승한 수준으로, 지난 4일 이후 3일 연속으로 장중 8만달러를 넘겼다. 지난 한 달 간의 가격 상승폭은 24.50%에 육박했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세도 거세다.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은 지난 1개월 동안 32.08%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고, 3위 바이낸스(BNB)는 29.89%올랐다. 4위 리플(XRP)은 39.25%, 5위 솔라나(SOL)는 46.15%의 가파른 상승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심도 뜨겁다. 지난 6일 가상자산 시장의 투심을 나타내는 지표인 탐욕·공포 지수(0~100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투심 과열)는 75를 기록해 '탐욕'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가상자산 가격 상승이 한창이었던 작년 5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달 말에는 공포·탐욕지수가 82까지 상승해 '극단적 탐욕'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난 2024년 11월 이후 최초다.

◆ '클래리티법' 임박…정책적 기대감↑

최근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을 이끄는 것은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입법 기대감이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을 '상품성 가상자산'과 '증권성 가상자산'으로 분류해 중복 규제 가능성을 해소하는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증권성 가상자산은 미 증권위원회(SEC)가, 상품성 가상자산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게 된다. 파생상품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업 투자자의 자금 투자를 촉진하는 만큼, 친(親) 가상자산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클래리티법은 오는 15일(현지시간) 미 상원 표결을 앞뒀다. 클래리티법은 작년 7월 미 하원 통과 이후 1년 넘게 미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최근 법안 초안 작성을 주도했던 프렌치 힐 미 공화당 의원이 "초당적 논의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입법 기대감이 커졌다. 클래리티법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 7명의 미 민주당·무소속 상원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클래리티법이 불발되더라도 '대체법안'이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가상자산 투자 체계를 규율하는 '레귤레이션 크립토(Regulation Crypto)' 규정을 제안했다. 해당 규정은 클래리티법과 유사하게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규제기관별 규제범위를 분리하는 만큼, 클래리티법의 지연을 우회하는 '대체법안'으로 평가받는다.

폴 S. 앳킨스 미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은 당시 "해당 규정은 가상자산 사업자 및 투자자들이 연방 증권법에 따라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의회가 지속가능한 규제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시장에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 강세 요인 여전…'추가 강세' 가능성

전문가들은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평가한다. 달러 약세를 비롯한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 요소가 여전해서다.

가상자산 전문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Bitwise)의 안드레 드라고시 유럽 리서치 책임자는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가격과 달러지수(DXY) 간의 상관관계는 음수로, 달러 약세는 비트코인에 유리한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달러의 평가절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일종의 증폭된 금(Gold) 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주식의 상관관계는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고, 금과의 상관관계는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면서 "비트코인이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여겨지는 현 추이가 이어진다면, 향후 가격 양상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분기 산업대출 잔액 2065조, 30조 증가

한은, 제조업 대출 전분기比 8.4조↑
부동산 PF에 서비스업 대출폭 키워

올해 2분기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대출이 30조원 넘게 늘면서 잔액이 2065조원을 넘어섰다. 반기 말 재무비율 관리로 제조업 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과 증권사의 증거금 수요가 늘면서 서비스업 대출은 증가폭을 키웠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에 따르면 2분기 말 산업별대출금 잔액은 2065조3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0조6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액은 1분기 30조8000억원보다 2000억원 줄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92조3000억원(4.7%) 늘었다.

제조업 대출은 8조4000억원 증가해 1분기 11조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업들이 반기 말 재무비율 관리에 나서고 일부 대출을 조기 상환하면서 시설자금 증가액이 4조4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업종별로 화학·의료용제품 대출 증가액이 2조4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줄었고 제1차금속도 2조1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전자·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는 1조원 늘어 전분기 증가액 1조8000억원을 밑돌았다.

반면 서비스업 대출은 19조9000억원 늘어 전분기 19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업 대출 증가액은 PF 대출보증 확대 등의 영향으로 2조5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커졌다.

금융·보험업도 4조8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인상으로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결과다. 도소매업 대출 증가액은 5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자금 용도별로는 운전자금이 23조8000억원 늘어 전분기 21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회사채 상환을 위한 자금 수요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시설자금 증가액은 9조4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업권별로 예금은행 대출은 29조3000억원 늘어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1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예금은행 대출 가운데 대기업 증가액은 12조7000억원에서 16조5000억원으로 커졌고, 개인사업자는 1조5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김주형 기자 gh471@

서울 양천구 목동에 들어서는 '목동윤슬자이'의 견본주택에 마련된 내부 모형도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다. /더피알

'100% 추첨제' 목동윤슬자이 오늘 청약

20년만의 목동 신축, 70% 대출
평당 1억 안팎 높은 분양가 부담

서울 양천구 목동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목동윤슬자이'가 청약에 흥행할 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목동에서는 20년만에 들어서는 신축인 데다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하이엔드라고 해도 3.3㎡(평)당 1억원 안팎의 분양가는 부담이다.

7일 청약홈에 따르면 목동윤슬자이는 오는 8일 청약을 진행한다. 청약통장이나 주택 소유, 거주지역 등에 제한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는 100% 추첨제로 선정한다.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30년 12월로 공고됐다.

목동윤슬자이는 옛 KT 목동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8층, 3개 동, 전용면적 114~203㎡ 총 651실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공급 물량은 ▲115㎡A 118실 ▲114㎡B 208실 ▲114㎡C 118실 ▲119㎡A T1 45실 ▲120㎡A T2 30실 ▲120㎡A T3 15실 ▲117㎡C T1 45실 ▲118㎡C T2 45실 ▲203㎡AD 10실 ▲202㎡BD 9실 ▲198㎡CD 8실 등이다. 전 호실에 오픈형 발코니를 적용하고,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해 가족 단위 실거주 수요를 겨냥했다.

장단점은 명확하다.

먼저 장점은 좋은 입지와 고급화된 상품이다. 목동 생활권의 중심인 5호선 오목교역이 도보거리며, 교육을 비롯해 대부분의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상태다. 세대 내부는 발코니 등을 활용한 특화설계와 함께 수입 주방가구와 수입산 마감재가 기본 사양이며, 시스템에어컨과 세탁건조기 등 주요 가전도 모두 제공한다. 47층스카이 커뮤니티와 함께 지하에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위탁 운영하는 '콩코드 클럽 바이 조선'이 들어선다.

자금 부담도 덜하다. 서울에 적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대출 규제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만 가능하다면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별도로 중도금 이자후불제가 적용되며, 대출금리는 연 2.5%로 제시했다.

단점은 먼저 높은 분양가다. 타입별로는 115㎡A가 33억4400만원이며, 복층형인 202㎡BD는 63억4000만원에 달한다. 인근 주상복합 단지인 '현대하이페리온 II' 전용 119㎡는 지난 5월 31억원에 실거래를 신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카카오뱅크, 고객 자산현황 '한눈에'

모바일 앱 화면 개편

카카오뱅크가 고객의 자산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이용 특성에 맞춰 화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홈 화면을 개편했다.

카카오뱅크는 보유 계좌를 유형별로 묶어 보여주고 카드·신용정보·투자 등 주요 금융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앱 홈 화면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개편된 홈 화면에서는 고객이 보유한 계좌를 유형별로 묶어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계좌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계좌가 함께 표시돼 긴 화면을 스크롤하지 않고도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별도 탭에서 확인해야 했던 카드와 신용정보, 투자 관련 항목도 홈 화면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앱을 실행한 직후 카드 이용금액과 신용점수 변동, 투자 수익률 등 주요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계좌와 서비스만 선택해 홈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맞춤형 편집 기능도 도입했다. 화면 하단의 '화면 편집' 메뉴를 통해 노출할 계좌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계좌별 잔액을 숨기는 것도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고객별 금융 이용 방식과 생활 패턴에 맞춘 개인화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금융
비즈니스대상서 '금상'

하나금융그룹은 '2026 국제비즈니스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IBA)'에서 출판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수상작인 '하나금융그룹 20년사'는 그룹 출범 2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하나금융 최초의 통합 역사서다. 자주·자율·진취의 창업정신을 비롯해 손님과 사회를 향한 그룹의 가치와 성장 과정을 담았다.

특히 1971년 그룹의 모태인 한국투자금융 설립부터 하나은행 전환, 하나금융그룹 출범에 이르기까지 55년에 걸친 도전과 성장의 역사를 집대성했다. 사사 편찬 전문기업 다니기획과 협력해 역사적 기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나유리 기자

HD현대, 초대형 암모니아 추진선 인도 등 상용화 실적 '착착'

내달 9만3000㎥급 VLAC 인도
앞서 '안트베르펜' 상용항해 마쳐
친환경 이중연료 엔진 공급 확대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세계 최초의 중형 가스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HD현대

HD현대가 암모니아 추진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세계 최초 원양 암모니아 추진선을 인도한 데 이어 오는 10월에는 또 다른 글로벌 업체의 암모니아 엔진을 적용한 초대형 암모니아운반선(VLAC)을 인도한다. 엔진 제작부터 선박 건조까지 암모니아 추진선 상용화 전반에서 실적을 쌓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오는 10월 싱가포르 선사 이스턴퍼시픽쉬핑(EPS)에 9만3000㎥급 VLAC를 인도한다. 이 선박에는 덴마크 에버런스가 설계한 6기통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 '6G60ME-LGIA'가 세계 최초로 탑재된다. 엔진은 HD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가 제작했으며 지난 4월 공장인수시험(FAT)을 통과했다. 이 선박을 포함해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 탑재가 확정된 9만3000㎥급 VLAC는 총 2척이다.

선박에는 고압 선택적 촉매환원(HPSCR) 장치와 암모니아 독성에 대비한 격납·센서·환기·이중벽 배관 등 안전 설비도 적용된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벨기에 선사 엑스마르에 4만6000㎥급 LPG·암모니아 운반선 '안트베르펜(ANTWERPEN)'을 인도했다. 스위스 WinGD가 개발하고 HD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가 제작한 'X52DF-A'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이 탑재된 세계 최초 원양 암모니아 추진 상선이다.

안트베르펜은 지난 7월 중국에서 암모니아 약 3만t을 싣고 인도까지 운송하는 첫 상용항해를 마쳤다. 암모니아 이중연료 모드로 운항하며 상용 실적도 확보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5일 후속 자매선 '아딘케르커(ADINKERKE)'호와 '알터(AALTER)'호의 명명식을 마치고 순차 인도에 들어갔다.

향후 추가 적용 가능성도 열려 있다. 회사 측은 일부 선주 요청에 따라 암모니아 레디(Ammonia-Ready) 사양으로 건조되기도 하며 기존 VLAC도 엔진 납기와 디자인 등 조건이 충족되면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 사양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24일 기준 올해 LPG·암모니아·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50척을 수주했다.

이와 함께 암모니아를 포함한 친환경 이중연료 엔진 공급 기반도 넓히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LNG·LPG 이중연료 엔진 생산을 늘려 중대형 선박용 2행정 엔진의 친환경 엔진 비중을 지난 2023년 55%에서 2027년 85%로 높이고, LNG·메탄올·암모니아 엔진 영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엔진 생산능력 확대 투자도 진행 중이다. HD현대중공업 엔진기계부문은 올해 생산설비 구축 등에 1761억원을 투자하며 지난 3월 말까지 1035억원을 집행했다. HD현대마린엔진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생산설비 등에 총 628억원을 투자한다.

윤현규 국립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암모니아는 친환경성이 강하지만 독성이 있어 관련 기술을 실제 선박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며 "암모니아 추진선 상용화 과정에서 HD현대의 제작·건조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100일 앞으로

7조대 마일리지 별도 유지·운영 가능성

대한항공 통합방안 심사 이어져
마일리지 운영방식 확인 어려워

대한항공 보잉 747-8i 항공기. /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법적 합병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별도 운영하는 통합방안이 마련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아, 합병 이후에도 한동안 양사 마일리지 제도가 따로 운영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법적 합병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대한항공이 존속회사로 남고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통합 대한항공은 다음 날인 17일 공식 출범한다.

현재 공개된 통합방안에 따르면 기존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는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별도 운영된다. 기존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운항편의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별도 운영기간 중 신청할 수 있다. 항공편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로 전환된다. 10년 뒤 남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스카이패스로 일괄 전환된다.

다만 통합방안은 공정위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통합안을 제출한 뒤 보완 절차를 거쳤고 올해 1월 3차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현재도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증권신고서를 통해 합병기일까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승인 시점까지 양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별도로 유지·운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적 합병과 마일리지 통합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소멸 이후 통합안 승인 전까지 신규 마일리지가 어떤 방식으로 적립되고 기존 마일리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 세부 운영 방식은 현재 공개된 통합안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마일리지 규모도 크다. 올해 상반기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이연수익은 3조1199억원, 아시아나항공은 9468억원으로 합계 4조667억원이다. 이연수익은 향후 마일리지 사용에 제공할 서비스를 부채로 인식한 금액이다.

합병 이후 고객 체계도 대한항공 중심으로 재편된다. 아시아나항공은 12월16일까지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지위를 유지한 뒤 스카이팀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존 아시아나 우수회원도 보유 등급에 따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우수회원 등급으로 매칭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통합 이후 어떻게 되는지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다"며 "현재 제시된 전환 방안은 합리적이지만 승인이 왜 계속 지연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

MSPO 2026

한화, 차세대 방산 솔루션 대거 전시

한화에어로·한화시스템 통합 전시

한화가 다층방공망(Multi-layered Air Defense)과 유무인복합체계(MUM-T), 우주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방산 솔루션을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제34회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 2026)'에 공동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1000여개 방산 기업이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에서 양사는 274㎡ 규모의 통합 전시관을 운영한다.

통합 전시관에는 '검증된 파트너십, 전략적 역량, 자주국방'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과 발트해 연안국의 안보 수요에 맞춘 방산 포트폴리오를 공개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드론부터 장거리 미사일까지 저·중·고도 위협에 단계별로 대응하는 다층방공망을 전면에 내세운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과 단거리 방공체계 H-SHORAD, 탐지·타격 기능을 결합한 대드론 체계 H-Shield, 40㎜ 차륜형 무인방공체계 등을 전시한다.

각 체계는 위협 유형에 따라 요격 수단을 선택해 운용하는 복합무장 방식으로 구성된다. 한화시스템의 지휘통제체계(C2)와 요격드론을 연동해 탐지부터 지휘·통제, 타격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 능력도 제시한다.

한화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전력화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과 50㎾급 기동형 레이저 장갑차, 20㎾급 레이저 전술차량을 소개한다. 레이저 무기는 1발당 발사 비용이 약 2000원으로, 빛의 속도로 초소형 드론 등 소형 표적을 수초 내 무력화할 수 있다.

지상 무인체계 분야에서는 K9A1 자주포와 무인상륙형다련장, 무인지상차량(H-UGV)을 연계한 유무인복합체계 운용 개념을 디오라마와 실물 장비로 구현한다. 수출형 보병전투장갑차(K-NIFV)와 지상 전력의 생존성을 높이는 능동방호체계(APS)도 함께 선보인다.

/원관희 기자 wkh@

LG엔솔, LMR 배터리 장기 안전성 강화

서울대 연구진과 용량저하 원인 규명

LG에너지솔루션과 서울대학교가 차세대 리튬망간리치(LMR) 배터리의 가스 발생을 억제하고 장기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을 확보하면서 전기차용 대형 셀 상용화 가능성을 끌어올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서울대 화학부 임종우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LMR 배터리의 가스 발생과 용량 저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대형 셀 운용 조건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LMR은 코발트 대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망간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차세대 양극 소재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충·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충전 과정에서 산화된 산소가 방전 때 충분히 환원되지 않으면 배터리 내부 구조가 손상되고 가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부 여유 공간이 제한적인 전기차용 대형 셀에서는 가스 발생이 내부 압력 상승과 성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공동 연구팀은 충·방전 조건에 따른 산소의 산화·환원 거동을 분석한 결과, 산소 회복률이 충전 상한 전압뿐 아니라 방전 하한 전압의 영향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충전 상한 전압을 4.6V에서 4.3V로 낮추자 산화된 산소의 환원율은 86%에서 97%로 높아졌다. 방전 하한 전압을 기존 3.0V에서 2.0V로 낮췄을 때는 산소가 원래 상태에 가깝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를 바탕으로 40Ah급 LMR 대형 셀의 구동 전압 범위와 활성화 공정 조건을 재설계했다. 활성화 단계에서는 공정 온도를 낮춰 대형 셀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억제했다.

/원관희 기자 wkh@

LIG D&A, 통합 방공·정밀타격 기술 전면에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통합 방공과 정밀타격 기술을 앞세워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방산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

LIG D&A는 오는 8일부터 나흘간 폴란드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MSPO 2026'에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LIG D&A는 폴란드 다층방공망 사업과 한국형 정밀유도폭탄(KGGB) 사업을 핵심 전략 과제로 내세운다. 천궁-II와 L-SAM 등 통합 방공 솔루션과 KGGB를 전시할 예정이다.

KGGB는 저비용·고효율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항공무장이다. LIG D&A는 실전 데이터와 정밀도를 앞세워 전시와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폴란드 국방 관계자와 글로벌 방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협력과 수출 논의도 진행한다. 라인메탈(Rheinmetall) 부스에서는 양사가 협력 중인 단거리 방공 미사일과 차량형 발사대 목업을 선보인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中企 판로지원' 한곳에 모은다… 비용절감·마케팅 효율 기대

한유원·공영홈쇼핑 통합 결정
21대 국회서 판로지원공사 논의

국내 판매·해외수출 연계 기대
공공성·수익성 충돌 등 과제 산적

통합 후 T-커머스 허가도 '파란불'
방미통위, 1개 vs 2개에 관심 쏠려

서울 목동에 있는 행복한백화점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전경.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을 가칭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중기마케팅공사)로 통합키로 하면서 새 기관이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판로개척이라는 임무를 갖고 있는 두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논란은 최소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위해선 갈길이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들 두개 기관의 통합은 기정사실화 됐다.

두 기관 통합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대두됐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판로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같은 조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는 "두 조직을 하나의 공사로 만드는 것은 예산 절감, TV·모바일·이커머스 통합, 원스톱 마케팅 지원, 국내 판매와 해외 진출 연계 등 차원에서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통합이 곧바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성과 수익성의 충돌 ▲관리·감독 강화속 자율성 위축 ▲지원사업 관료화 ▲고용승계와 조직문화 갈등 등을 우려 요소로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의 실질수수료율(2024년 거래 기준)은 19.52%로 7개 TV 홈쇼핑 가운데 가장 낮다. TV홈쇼핑 평균은 27.67%다.

TV홈쇼핑 뿐만 아니라 모바일까지 100% 중소기업 제품을 취급해야 하는 공영홈쇼핑 특성상 낮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지속가능한 수익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다.

행복한백화점, 동반성장몰, 면세점을 비롯해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등을 운영하는 한유원은 2023~2025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 상태다. 이때문에 일부에선 통합에 대해 공영홈쇼핑이 번 돈을 한유원에 쏟아붓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통합 과정에서 지배구조도 풀어야할 숙제다.

한유원은 중기부 산하인 중진공이 100%로 출자한 회사다. 하지만 자본금 800억원으로 출범한 공영홈쇼핑은 한유원이 50%, 농협경제지주가 4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5%의 지분을 각각 나눠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경제와 수협이 보유하고 있는 공영홈쇼핑 지분 처리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과거 논의됐던 중기판로지원공사법에선 새 조직의 자본금을 2000억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유원과 공영홈쇼핑간 다른 급여, 인사, 성과체계 등도 관건이다.

임금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일반정규직) 공영홈쇼핑의 1인당 평균 연봉은 7628만원으로, 한유원(6776만원)보다 연간 852만원(12.6%) 많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기마케팅공사로의 통합은 옳은 방향"이라면서 "다만 두개 기관만 합칠 것이 아니라 중진공의 수출마케팅 부문까지 더해 중소기업 판로 전담 기관으로 완벽하게 거듭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중진공은 수출마케팅·글로벌화 사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온·오프라인 수출, 물류 및 해외진출 등을 단계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기마케팅공사로 탈바꿈할 경우 공영홈쇼핑이 오랫동안 염원했던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사업자 선정엔 파란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中企 공장에 '피지컬 AI' 심는다

과기부와 기술개발·실증 연계
공급·수요기업 연결 AI도입 지원
'모두의 AI 공장장' 등 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 제조 현장의 피지컬 AI 전환과 확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다.

중기부는 과기부와 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피지컬 AI 실증랩을 방문하고 피지컬 AI 기술 공급기업과 제조 현장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중기부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정책과 과기정통부의 피지컬 AI 기술개발·실증 역량을 연계해 기술개발에서 현장 적용, 확산까지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피지컬 AI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등 민관협력체계를 통해 기술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해 중소제조기업의 피지컬 AI 도입을 지원한다.

이번 협력의 대표 과제로 '모두의 AI 공장장'과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제조기업의 피지컬AI 도입·확산을 추진한다.

과기부는 전북(무인공장 제어·운용)·경남(초정밀 제조 지능화) 지역실증을 통해 확보한 피지컬 AI 기반 풀스택 솔루션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물류·생산 전공정 자율화를 위한 설계·분석·조달·교육 컨설팅과 공장 운영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피지컬 AI 풀스택 기술이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실제 중소 제조 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피지컬 AI 기반 제조 환경 구축과 실증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과기부의 '모두의 AI 공장장' 서비스 활용과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증 우수성과는 향후 구축할 '제조AI 24'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또 피지컬 AI의 제조 현장 확산뿐만 아니라 신성장분야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미래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부처 공동 연구개발(R&D)도 기획·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넥센타이어, 신형 아반떼 타이어 공급

지역별 주행환경 맞춤 제품 적용
전국 19개 청창사서 24개 행사 개최
투자유치·청렴윤리·사회공헌 등 운영

넥센타이어가 현대자동차의 8세대 완전변경 모델 '디 올 뉴 아반떼'에 지역별 주행 환경을 고려한 신차용 타이어(OE)를 공급한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8월 출시한 디 올 뉴 아반떼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아반떼가 판매되는 지역의 기후와 도로 환경에 맞춰 서로 다른 제품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내와 북미 시장에는 사계절용 '엔프리즈 S(N'PRIZ S)' 16·18인치가 장착된다. 눈길 주행 안정성과 정숙성, 연비·내마모 성능을 고려한 제품이다.

유럽에는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력과 핸들링 성능을 강화한 여름용 '엔블루 S(N'BLUE S)' 16인치가 공급된다. 중동에는 엔블루 S 16인치와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도록 내마모 성능을 높인 '엔페라 프리머스(N'FERA Primus)' 18인치가 적용된다.

넥센타이어는 포르쉐·메르세데스-벤츠·BMW·아우디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회사는 차종과 시장 특성에 맞춘 제품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신형 아반떼 공급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시장의 운전자들과 접점을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 공급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

고려아연 주총, MBK·영풍 의결권 제한 시도 불발

법원, 의결권 가처분 전부 기각
차입처·담보계약 허위단정 어려워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전부 기각됐다. 법원은 MBK·영풍이 문제 삼은 차입처와 담보계약 관련 공시가 의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는 9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현 경영진 측의 의결권을 제한하려던 MBK·영풍의 시도가 무산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는 모습이다.

7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4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및 최윤범 회장 측 주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전부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신청인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고려아연.

이번 가처분은 최 회장 측 피23파트너스가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로부터 고려아연 주식 41만9082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공시가 쟁점이 됐다. MBK·영풍은 대출기관과 담보계약 상대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했다며 해당 지분의 의결권 제한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기재되는 '차입처'를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제한 사유가 되는 중요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최초 보고서에 담보계약 상대방으로 메리츠증권을 기재한 것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후 대주단 구성과 주요 계약 내용이 추가로 정정 공시된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현 경영진 측이 관련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결권 제한의 전제가 되는 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9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양측의 지분을 둘러싼 표 대결 구도에도 변화가 없게 됐다. 독립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등을 놓고 맞붙는 만큼 실제 의결권 행사 규모와 주주들의 선택이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후보자의 전문성과 독립성, 중장기 기업가치를 중심으로 주주들이 판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중진공, 청년 창업가 성장·투자유치 지원

전국 19개 청창사서 24개 행사 개최
투자유치·청렴윤리·사회공헌 등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청년의 날(9월 19일)과 청년주간(9월 19일~9월 25일)을 맞아 전국 19개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지역 청년 창업가를 위한 맞춤형 소통 행사를 개최한다.

7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청년주간 행사는 청년 창업가들의 기업 성장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중점을 두고 투자유치(IR)와 청렴윤리, 사회공헌 등 ESG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운영한다. 중진공은 IR 행사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투자유치 역량과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ESG 활동을 전개해 지역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소통을 도모할 방침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선 이달 중 총 24개 행사를 지역별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충북·전북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연합해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Dual-Impact Demoday' ▲지역 투자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강원 청년창업사관학교 기관연합 Closed IR' ▲딥테크 분야 기술 교류를 위한 '딥테크창업사관학교 기술교류회' ▲'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ESG 활동 with 지역사회' ▲청년 창업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CEO 플로깅 데이' 등 현장 밀착형 행사가 이어진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개교 이래 청년 창업 전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는 950명의 우수한 청년창업가를 선발해 기본과정과 심화과정(글로벌, 딥테크)으로 나눠 분야별 전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AX(인공지능 전환) × 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 · 모빌리티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2026년 9월 16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주 제 'AX(인공지능 전환) × 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 · 모빌리티
일 시 2026년 9월 16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물류&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도보 3분)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0	〈축사〉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14:40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 : 미래모빌리티 G3 혁신전략
	14:40~15:10	**박민영** 인하대학교 교수 : 변화, 혁신, 그리고 물류
강 연	15:10~15:40	**감병우** 대동그룹 개발부문장 전무 : 농업 모빌리티의 AX 및 GX 현황
	15:40~16:10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 : New Commerce에 대응하는 물류
	16:10~16:40	**노제경** 마스오토 부대표 : 자율주행이 바꿀 한국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 –부산항 수출화물에서 미국 대륙횡단 왕복 노선까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metro · metro 경제

빅테크 올인 vs 국내 분산… 원금회수는 '과제'

통신3사, AI 투자 전략

SKT, 앤트로픽 시리즈 H 투자
지분율 0.3%, 최대 4.2조 추산

KT, 업스테이지·리벨리온·래블업
국내 강소 스타트업에 분산 투자

LG U⁺, 펀드 출자로 위험도 낮춰

정재헌 SK텔레콤 CEO가 지난 6월 일본 도쿄에서 글로벌 AI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아이온 AI 펀드' 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

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투자 전략을 달리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국내 AI 기업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는 반면, SK텔레콤은 해외 유망 기업에 과감하게 집중 투자하는 모습이다. 다만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과 투자 성과를 주주가치로 연결해야 하는 부담도 뒤따른다.

7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글로벌 생성형 AI 기업 앤트로픽에 시리즈 H 투자를 통해 추가 지분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약 1300억원의 대규모 투자에 이은 것이다. 현재 지분율은 0.3% 안팎으로 알려졌으며, 시장에서는 지분 가치를 최대 4조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 기업의 지분 확보를 통해 AI 기술 경쟁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투자 초기에는 앤트로픽이 글로벌 빅테크와 차별화 된 맞춤형 AI 모델 '텔코 LLM'을 SK텔레콤에 제공하면서 국내 기업간거래(B2B) 시장을 확보했다. 올해에는 앤트로픽이 주도하는 글로벌 보안 협력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합류해 기술 동맹을 지속 중이다.

SK텔레콤은 이에 앞서 북미 진출을 위해 2년에 걸쳐 집중 투자한 적도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앤트로픽 텔코 LLM 협력에 이어 한국어 검색 성능 개선을 위해 퍼플렉시티에 약 135억원을 투입했다. 이 밖에 영상 이해 AI 모달 트웰브랩스, 오픈소스 전문 투게더 AI에 추가 투자해 소수 지분을 확보했다.

반면KT와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 요소를 낮추는 분산형 투자 전략을 취하고 있다. KT는 업스테이지, 리벨리온, 래블업 등 국내 강소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나눠 투입했다. 업스테이지의 경우 지난 2023년 100억원을 투자해 현재 보유 지분율은 2.58%다. 리벨리온은 약 660억원 규모의 두 차례 투자를 통해 약 4.9% 지분을 확보했다.

LG유플러스는 펀드 출자를 통해 투자 위험을 낮추고 있다. 지난해 총 153억원을 들여 국내 유망 AI 기업으로 구성된 4개 펀드에 투자를 집행했다. 간접 투자를 통해 실패 요인을 최소화하고 포트폴리오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기업들이 이처럼 스타트업 투자를 지속하는 이유는 AI 경쟁력 확보와 투자 수익 창출 때문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선점하는 상황에서 기술 개발에 투입하는 시간·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 또 기업공개(IPO) 등으로 몸값이 뛰었을 때 매각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

다만 투자한 기업의 사업 부진으로 인한 원금 회수 압박도 있다. KT는 교육 특화 AI 콴다에 100억원을 투자했으나 최근 2년 연속 성장 정체를 겪고 있다.

주주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올해 북미 현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했던 펭귄·람다 등 3개 회사 지분을 SK하이닉스에 전량 양도했다. 당시 지분 총 가치는 약 4600억원으로 평가됐다. 문제는 SK텔레콤이 다시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AI컴퍼니에 7400억원을 출자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0.9%의 소수 지분만 확보했다. 이에 따라 초기 투자 위험이 계열사에 전가돼 주주들이 기업가치 상승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원더풀

시리즈 C 투자유치 성공 7700억 규모 자금 조달

제품 개발·글로벌 조직 확장 계획

엔터프라이즈 AI OS 기업 원더풀은 약 5억5000만 달러 규모 시리즈 C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원더풀은 이번 투자에서 기업가치 약 50억달러(약 7조원)을 인정받았다. 자금 조달 규모는 약 5억5000만달러(7700억원)이다.

C 투자 라운드는 글로벌 벤처캐피털 인사이트 파트너스 주도로 구성했으며, 세일즈포스를 비롯해 기존 투자사인 인덱스 벤처스, IVP, 바인 벤처스, 나인야즈, 베세머 벤처 파트너스 등이 후속 투자에 참여했다.

회사 측이 강조하는 것은 공통 운영체제다. 인공지능(AI)이 확산되면 기존 SaaS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솔루션과 시스템이 분산되고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기업 특화 AI OS를 통해 해결한다는 설명이다.

원더풀 AI OS는 다양한 AI 모델을 독립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워크플로우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도 가능한다. 복잡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제동화하는 워크플로우, 임직원 생산성과 의사결정 향상을 위한 생산성 에이전트 등이 있다. 또 레거시 소프트웨어를 보완·대체하는 AI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고객 서비스와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는 대화형 에이전트 등 주요 제품을 제공한다.

원더풀은 지난 3월 시리즈 B 투자 유치 이후 사업을 전 세계 35개국으로 확장했다. 이번 시리즈 C를 통해 확보한 투자 자금으로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현장 배치 전담 조직을 확장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타입캐스트'로 벌어 AI 에이전트·캐릭터 채팅 키운다"

김태수 네오사피엔스 대표
IPO 기자간담회서 사업계획 발표
오는 21일 상장… 내년 흑자 목표

김태수 네오사피엔스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사의 핵심 기술, 주요 제품 및 향후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김보민 기자

김태수 네오사피엔스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설립된 네오사피엔스는 텍스트를 감정과 억양이 담긴 음성으로 바꾸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음성 서비스 '타입캐스트'를 운영하는 음성 AI 기업이다. 226개국에서 누적 가입자 320만 명을 확보했다.

수익 구조의 주된 축은 타입캐스트다. 2025년 연결 매출은 106억원으로 최근 3년 연평균 66.4% 성장했고 공헌이익률은 80%다. 다만 지난해 영업손실 26억7600만원, 올해 상반기 33억9000만원으로, 아직 적자다. 기업 고객사는 2000곳을 넘었고 국내 10대 그룹 중 90%, 통신 3사와 지상파 3사를 확보했다.

네오사피엔스의 신성장 동력은 두 가지다. 기업 대상으로는 실시간 대화형 AI 에이전트 '네오나 에이전트'를 내세운다. 지난 5월 교육업체 윤선생과 1호 상용화 계약을, 8월에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 플러그링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개인 대상으로는 AI 캐릭터 채팅 앱을 준비한다. 이응곤 부대표는 "지금은 '네오나'라는 이름으로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데 리브랜딩 중"이라며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새 이름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감정 표현이 담긴 음성 대화로, 텍스트 중심인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술 측면에서는 음성인식·언어모델·음성합성을 자체 기술로 통합해 연산 원가를 65% 줄였다고 밝혔다.

해외는 두 갈래로 나눠 공략한다. 미국은 타입캐스트로 공략한다. 지난 7월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켓플레이스에 등재해 영업 채널을 확보했고, 해외 매출 비중은 올해 8%에서 2028년까지 30% 이상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AI 캐릭터 채팅 앱으로 공략한다. 국내에서 검증한 뒤 일본, 내년 대만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상장은 기술특례상장(혁신기술기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난 3월 기술성 평가에서 나이스평가정보와 이크레더블로부터 각각 A·BBB 등급을 받았다. 총 공모주식 수는 200만주, 희망 공모가는 1만3800~1만5800원으로, 예상 시가총액은 1683억~1927억원이다.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수요예측을 거쳐 10~11일 청약을 받고 21일 상장한다. 대표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회사는 내년 흑자 전환 후 2028년 매출 478억원, 영업이익률 32%를 목표로 제시했다. /김보민 기자 kbm@

네이버클라우드

대만 신주시 협업툴에 플랫폼 라인웍스 도입

스마트시티 구현·AI 기반 행정 DX

네이버클라우드가 자사의 협업 플랫폼 '라인웍스(국내 서비스명 네이버웍스)'가 대만 신주시(新竹市)의 공식 협업 툴로 도입됐다고 7일 밝혔다.

신주시는 TSMC를 비롯한 대만 최대 규모의 반도체·정보기술(IT) 산업단지가 있는 도시다. 회사 측은 이번 도입이 라인웍스가 대만 행정기관과 맺은 첫 대규모 협력 사례라고 설명했다. 신주시는 스마트시티 구현과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디지털 전환 사업의 하나로 라인웍스를 도입했다.

양측은 앞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애플리케이션 연구와 시범 사업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라인웍스는 대만 정식 진출 약 10개월 만에 150개 이상의 기업·기관과 1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일본 유료 비즈니스 협업 툴 시장에서 2017년부터 8년 연속 점유율 1위를 지켜왔다고 밝혔다. 회사는 신주시 사례를 이정표 삼아 대만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의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보민 기자

LG U⁺, 화담숲에 장기고객 5000명 초청… 멤버십 혜택 확대

'유플투쁠'서 컬리·오뚜기몰 등
먹거리 쇼핑 혜택, 제휴사 추가

LG유플러스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기 고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멤버십 혜택을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화담숲 초청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장기 고객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19일 경기도 광주 화담숲에 고객 5000명을 초청한다. 멤버십 VVIP 등급 및 10년 이상 장기 이용 고객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유플러스원을 통해 '화담숲 고객 초청 행사'에 응모할 수 있다. 당첨 고객에게는 화담숲 입장권을 1인당 1~4매 제공한다.

화담숲은 가을철 대표 단풍 명소로, 매년 단풍 시즌마다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이 가족·친구와 함께 화담숲을 단독 이용해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한 추석 연휴에 수요가 높은 혜택을 중심으로 멤버십 프로그램 '유플투쁠' 혜택을 확대한다.

식품·생필품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컬리·사조몰·오뚜기몰 등 먹거리 중심의 쇼핑 혜택을 확대한다. 신규 제휴사 유니스터디, 우파루 오딧세이, 인천공항 고메 브릿지 푸드코트 등 3곳도 추가했다.

특히 일별로 할인 혜택을 구성한게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컬리(8일), 아워홈몰(15일), 사조몰·그리팅(16일), 오뚜기몰(18일), 이마트24(24일) 등이다. 최대 2만원 까지 할인해준다.

나들이 혜택도 마련했다. 아쿠아플라넷 입장권(8일), 여기어때(10일), 롯데렌터카 G car(14일), CGV·오션월드(18일) 등이다. 숙소의 경우 최대 3만원 할인, 워터파크는 최대 절반 가격에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가족이 LG유플러스 멤버십 혜택을 소개하고 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가족 단위 고객이 함께할 수 있는 식음료 혜택은 피자헛·쿠팡이츠X노모어피자(8일), 백미당·매드포갈릭(10일), 공차(14일), 백억커피(15일), 투썸플레이스(17일), 배스킨라빈스(22일) 등이다. /조민선 기자

금융당국·증권가 책임 어디까지… 레버리지 ETF 국감 간다

오는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ETF 도입·규제 과정 집중 검증
ELS 과징금·홈플러스도 검증대

국회를 배경으로 레버리지 ETF를 뜻하는 '2X' 레버와 급등락 차트를 배치해, 국정감사에서 상품 도입 과정과 금융당국의 정책 판단이 검증대에 오르는 상황을 표현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오는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정부질문이 금융당국의 정책 판단을 묻는 전초전이라면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는 상품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증권사·자산운용사의 판매·운용 책임까지 검증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금융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비롯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과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이 주요 자본시장 현안으로 꼽힌다.

앞서 금융당국은 해외 상품과의 규제 비대칭을 해소하고 해외 투자수요를 국내로 돌린다는 취지로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을 허용했다. 그러나 시장 과열과 투자자 쏠림 우려가 커지자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신규 상장과 마케팅을 중단하고 기본예탁금과 교육 요건 등을 강화했다.

국감에서는 금융당국이 상품 출시 전 자금 쏠림과 반복적인 리밸런싱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충분히 분석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스스로 음의 복리효과와 손실 확대 가능성을 경고했던 만큼 위험을 알고도 제도를 서둘러 도입한 이유와 초기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절했는지도 쟁점이다.

정책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국내 상품 출시 이후인 5월27일부터 8월28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홍콩 상장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상품 매수결제액은 3억2142만달러로, 출시 직전 3개월간의 3억946만달러보다 줄지 않았다. 해외 수요를 국내로 유도하기보다 국내에 새로운 고위험 투자 수요만 만든 것인지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54조원 피해'의 산정 근거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의 확정 손실과 평가손실, ETF 순자산 및 기초자산 시가총액 감소는 구분해야 한다.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웠는지를 두고도 대외 여건과 상품의 리밸런싱 효과를 분리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금융당국 수장들의 책임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대정부질문에서 시작된 공방이 국정조사와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참고인 출석 요청이 올 수 있다고 보는 곳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라며 "국감 전에는 변수가 많고 당일에도 참고인 출석이 취소되거나 예상했던 주제가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동향을 지켜보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대응하며 상품 도입 협의 과정과 거래 현황, 투자자 손실 및 사후 규제 조치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이 당초 거론된 약 4조원에서 약 6000억원으로 줄어든 과정도 검증 대상이다. 국감에서는 과징금 감액 근거와 금융회사 제재 기준의 일관성·실효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MBK파트너스의 책임과 함께 홈플러스 유동화 ABSTB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쟁점이다. 금감원이 지난 7월 MBK 제재 심의를 마친 가운데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판매사 제재와 투자자 분쟁조정의 진행 상황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미래에셋, S&P500·미국채 반반 ETF 상장

성장성·안정성 동시에 추구
DC·IRP 계좌서 100% 투자 가능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오는 8일 'TIGER 미국S&P500미국채혼합50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잔존만기 1년 이하 미국 국채에 각각 50%씩 투자한다. 'S&P500 and Short-Term Treasury 50/50 Blend 지수'를 추종한다.

김동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ETF운용본부장은 이날 열린 상장 기념 웹세미나에서 "미국 주식의 성장성과 단기 국채의 안정성을 함께 추구하면서 포트폴리오 전체를 달러 자산으로 구성한 상품"이라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핵심은 퇴직연금에서 미국 주식의 투자 비중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채권혼합형 ETF로 분류돼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퇴직연금 위험자산 한도인 70%를 'TIGER 미국S&P500 ETF'에, 나머지 30%를 이번 상품에 투자하면 전체 자산의 85%는 S&P500, 15%는 미국 단기국채로 구성된다.

두 자산의 비중은 매일 50대 50으로 조정된다.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하락한 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주식에만 투자할 때보다 변동성과 고점 대비 최대 낙폭을 낮추고 손실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채권 부문은 중장기물이 아닌 잔존만기 0~1년 미국 국채로 채웠다. 환헤지를 하지 않아 S&P500과 미국 국채 모두 달러에 노출되는 것도 특징이다.

/허정윤 기자

최근 7월과 8월 두 달간 유통업종 주가의 희비가 엇갈렸다. /따능AI

편의점 웃고 백화점 울고… 유통주 '희비'

외국인 관광객 소비 증가 등 호재
기준금리 인상·원화 강세 변수

유통업종 주가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7월 1일~8월 31일) BGF리테일 주가는 11만5600원에서 14만7800원으로 27.9% 상승했고, GS리테일도 11.7% 올랐다. 반면 신세계는 46.7%, 현대백화점은 50.8% 급락하며 사실상 반토막 났다.

증권가에서도 편의점 업계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일제히 목표주가를 상향 또는 유지했다.

BGF리테일은 7개 증권사 중 6곳이 목표주가를 올렸다. 이 가운데 유진투자증권(21만원)·한화투자증권(21만원)·대신증권 등이 20만원대를 제시했다. GS리테일도 7개 증권사 중 6곳이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특히 IBK투자증권이 기존보다 30% 높인 3만5000원을 제시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렸다.

남성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편의점 산업 재편에 따른 효과와 외국인 인바운드(방한 외국인 관광객 소비) 수요가 견인한 것"이라며 "3분기에도 이익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2분기 편의점 기존점 성장률이 7.5%로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점포 체질 개선과 기후 변화, 외국인 수요 3박자가 동시에 작용한 구조적 변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반대로 백화점 업계의 목표주가는 하향이 지배적이다.

신세계는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지만 7개 증권사 중 5곳이 오히려 하향 조정했다. 이 가운데 유진투자증권이 95만원에서 68만원으로 28%를 낮췄다. 현대백화점도 7곳 중 1곳을 제외하고 낮춰 잡았다. 본업은 견조했지만 자회사 지누스의 영업적자 267억원이 발목을 잡았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누스는 실적 회복의 가시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 지누스 실적 기저가 낮아지며 전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가 낮아질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희비가 엇갈린 배경에는 '주식자산 효과'가 있다. 상반기 증시 급등이 고가 상품 소비를 밀어올렸다가 다시 증시 급락 국면에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백화점 주가에 직격탄이 됐다는 것이다. 편의점은 이 여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외국인 인바운드 매출 증가라는 자체 동력까지 얻으면서 목표주가 상향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점은 변수다. 원화 강세 전환(외국인 쇼핑 감소) 가능성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김아영 기자 aykim@

증권 CEO들, 유럽서 AI·우주 투자 기회 찾는다

금융투자협회·증권사 14곳 CEO
산업 시찰하고 기관과 협력망 구축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금융투자협회

국내 증권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인공지능(AI)부터 디지털채권, 우주산업까지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유럽으로 향한다. 첨단기술의 상용화 현장을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정부·금융기관과의 협력망을 넓혀 실제 투자 기회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금융투자협회는 황성엽 회장과 증권사 14곳의 CEO로 구성된 '증권 NPK(New Portfolio Korea)' 대표단이 오는 12일까지 독일과 룩셈부르크를 방문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신성장 분야로 떠오른 AI와 디지털금융, 우주산업의 사업화 수준을 점검하고 국내 증권업계의 신규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단은 먼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기술 전시회 'IFA 2026'을 찾는다. AI와 스마트홈, 로보틱스,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기술이 실제 제품과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온디바이스 AI와 휴머노이드·피지컬 AI, 차세대 모빌리티의 상용화 속도와 시장 확장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기술 자체보다 산업 가치사슬과 기업의 수익모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해 새로운 투자 주제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

룩셈부르크에서는 금융과 우주산업을 중심으로 일정을 이어간다. 대표단은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부총리 겸 외교·통상장관과 만나 양국 금융투자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룩셈부르크 우주청(LSA)과 유럽우주자원혁신센터(ESRIC), 글로벌 위성통신기업 SES도 방문한다. 위성통신과 우주자원 등 관련 산업의 사업화 현황을 확인하고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살펴볼 계획이다.

자본시장의 디지털 전환 사례도 점검한다.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와 HSBC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채권 발행과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금융 인프라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현지 딥테크 창업지원센터인 테크노포트와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유럽 신생기업의 기술 상용화 현황을 공유하고 AI·로봇·우주 등 딥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AI와 디지털금융, 우주산업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는 핵심 성장 분야"라며 "이번 방문이 증권업계가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읽고 미래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인도시장 커진다… K-수출, 산업재 넘어 소비재까지 '확장'

코트라, 對인도 수출 168억달러 집계
전년보다 30.8% 늘며 고성장 지속
반도체·석화·기계 등 산업재 견인
라면·화장품 등 한류 소비재 약진
2030년 교역 500억달러 달성 속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사 사옥. /코트라

우리나라의 대(對) 인도 수출이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국 경제의 새로운 효자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4월 정상외교를 계기로 양국 정상에서 발표된 '2030년 한-인도 교역 5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향해 순항하는 모양새다.

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분석한 '2026년 한-인도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의 대인도 누적 수출액은 총 168억 달러로 전년 동기(128억 4000만 달러) 대비 30.8% 증가했다. 동기간 누적 수입액 역시 50억 3000만 달러로 16.2% 늘어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18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교역 확대의 강력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4월 대인도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41.9% 증가한 이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8월 당월 수출액은 23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15억 9000만 달러) 대비 47.3%나 늘어나며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 印 '메이크 인 인디아' 수요와 韓 첨단 소부장 기술력 결합

이번 수출 폭증의 핵심 동인은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와 AI·데이터센터·인프라 등 신산업 확충 정책에 있다. 인도가 글로벌 생산기지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현지 공급망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분석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재가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 단일 최대 수출품으로 떠오른 반도체는 8월 중(1~25일 기준) 6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7.5% 급증했다.

인도 제조업의 기초 원료 및 설비 고도화 수요가 몰리면서 석유화학(3억 2000만 달러, +31.4%)과 일반기계(1억 5000만 달러, +16.5%)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이 밖에도 배터리, 정밀소재, 철강·금속 등 주요 산업재 제품 역시 인도 현지의 인프라 확충과 맞물려 수요가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면 54%·화장품 19% ↑… 한류 소비재로 수출 다변화

산업재뿐만 아니라 K-푸드와 K-뷰티를 위시한 한류 소비재의 약진도 눈에 띈다. 올해 7월 누적 기준 라면 등 면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7% 증가했으며, 화장품으로 대표되는 K-뷰티 제품 수출도 19.2% 늘었다. 중산층 확대로 소비 여력이 커진 인도 시장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실제 제품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트라는 이 같은 수출 상승세를 몰아 '2030년 한-인도 교역 500억 달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수출 및 해외진출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 4월 정상외교 후속 조치로 가속화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바탕으로 공급망 및 산업 협력 기반을 한층 다진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9월 중순 뉴델리에서 열리는 '세미콘 인디아'와 연계해 '한-인도 반도체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한다.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반도체미션(ISM)'에 발맞춰 국내 소부장 기업 15개사가 타타, 마이크론 등 현지 앵커기업과 만나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한다.

아울러 소비재 진출을 위해 인도 현지 1위 유통기업인 '릴라이언스'와의 대형 판촉전을 연내 추진하고, 오는 12월 뭄바이에서 열리는 코스모프로프 전시회에 K-뷰티관을 운영하는 등 인도 유통망 공략을 본격화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8월까지 대인도 수출이 30% 이상 급증한 것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기 속에서 거대 시장의 기회가 본격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정상외교 후속 성과를 극대화하고 소부장부터 소비재까지 인도 수출·해외진출을 다변화해 '2030년 한-인도 교역 500억 달러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I 시대 韓 에너지정책 미래 해법 모색

에경연 40주년 정책세미나
IEA 사무총장 기조연설
에너지안보·전력망 논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오는 17일 서울 엘타워에서 '에너지·기후·번영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와 기후변화 정책 변동,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폭증 등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 속에서 한국의 미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후 기념세션에서는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의 기념사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회성 초대원장, 우원식 국회의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축사가 진행된다.

학술 세션은 총 2개로 나눠 진행된다. 오전 세션에서는 '지정학, 기후,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주제로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공급망 위기 속 에너지 안보 과제를 점검한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일본에너지경제연구원(IEEJ)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 등이 발표 및 토론자로 나선다.

오후 세션에서는 '회복력 있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AI 시대의 전력망 혁신, 계통 유연성 확보, 원전·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의 조화로운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의 진행으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BloombergNEF 등 국내외 기관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은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연구원의 지난 40년을 기념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사정등록은 10일 오후 6시까지 행사 안내문의 사전등록 링크(https://event-us.kr/keeixenergy/event/132879)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행사장 수용인원 제한으로 사전등록자에 우선 입장 기회가 제공되며, 행사에는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AI 캐릭터 '로사' 공개

국민이 생성형 AI 활용해 직접 제작
노사상생 의미 담아 홍보 콘텐츠 활용

노사발전재단을 상징하는 새 캐릭터 '로사'(Rosa)가 향후 기관의 각종 홍보활동에 투입된다. 노사발전재단은 '2026년 AI(인공지능) 활용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 대상 1점·우수상 50점 등 총 51개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직접 제작한 작품들이 경합을 벌였다.

이 공모전은 재단의 주요 사업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별도의 그림 실력이 없어도 생성형 AI 도구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점이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재단은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된 응모작들은 1차 적격 심사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2차 심사를 거쳤다. 창의성과 상징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51점을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캐릭터 이름은 재단 직원들의 작명 투표를 거쳐 '로사'라는 공식 명칭으로 최종 확정됐다. 로사는 노동자의 로(勞)와 사용자의 사(使)를 합친 이름으로, 노사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사무총장상과 온누리상품권 40만 원을, 우수상 수상자 50명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당선자 명단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단은 향후 선정된 캐릭터 로사를 재단 누리집과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물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국민이 AI를 활용해 직접 만들어 준 캐릭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새로운 얼굴인 '로사'를 재단의 사업을 국민께 더 가깝게 전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아세안 농업 메탄 감축에 한국 기술 투입

농어촌공사, 캄보디아 시범사업
논 262ha에 간헐적 관개 도입

한국농어촌공사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대상의 농업부문 메탄 감축 지원을 개시했다. 공사는 이들 국가의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 지원을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을 현지 벼농사 등에 전파한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협력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캄보디아에서 시작된다.

공사는 '한-아세안 메탄 감축 협력사업'의 첫 국가별 시범사업을 캄보디아에서 추진하고, 아세안 역내 농업부문 메탄 감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부의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재원으로 아세안 국가의 메탄 감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메탄 감축정책과 제도기반 조성 ▲메탄 배출 측정법 개선 ▲국가별 메탄 감축사업 개발·이행 등이다.

캄보디아에서 '한-아세안 메탄감축 협력사업'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는, 협력사업의 총괄을 맡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비롯해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농업총국(GDA) 등과 함께 사업 시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지난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올해 현지 타당성 조사와 시범사업 계약 등을 마쳤다. 1호 사업이 캄보디아 캄퐁톰에서 내년 5월까지 진행된다.

농업부문은 캄보디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를 차지한다. 그중 하나가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이다. 논에 물을 가두면 산소가 부족한 토양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메탄이 발생한다.

캄보디아는 메탄 감축을 위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0)'에 9만 헥타르(ha)의 논에 '간헐적 관개'를 적용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간헐적 관개는 논에 물을 댔다가 빼는 과정을 반복해 토양의 산소 조건을 조절하고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저탄소 농업 방식이다.

공사는 캄퐁톰 지역 논 262ha에 저탄소 농업을 도입한다. 먼저 간헐적 관개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5극3특 성장엔진 본격화… 7대 지원책 가동

산업부, 중앙·지방 고위급 협의체 출범

'5극3특(5대 메가시티·3대 특별자치도)' 권역별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지방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고위급 공식 협의체가 출범했다.

산업통상부는 7일 충북 오송 오스코에서 13개 지방정부 부단체장과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성장엔진 구상을 지방 주도로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 기존 실무협의회를 고위급 소통체계로 격상한 것이다.

이날 산업부는 지방정부의 성장엔진 투자 이행을 지원할 '성장엔진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지원책은 재정, 세제, 금융, 인재, 기술, 인프라, 제도 등 기업 투자의 전 과정을 망라한다.

구체적으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과 지역투자보조금 우대, 기업·근로자 대상 지방 우대세제 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40% 투자) 등 정책펀드 우대와 1조 원 규모의 성장엔진 우대보증이 제공된다. 기술·인프라 부문에서는 지역 자율형 R&D 및 제조 AX(AI 전환) 사업 최우선 지원과 함께 신규 첨단 국가산단, M.AX 클러스터, RE100 산단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산업부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5극3특 권역별로 '성장엔진 초광역 공동사업단'을 가동해 현장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도록 돕는다. /세종=한용수 기자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휴남동 서점
WERE
Open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 • 연출 박예슬 | 작곡 · 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 · 제작 극단지우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협찬 yes24 사계절 티켓문의 NOL 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인터뷰 | 민 경 선 경기도 고양특례시 시장

“항공우주·의료·K-컬처 산업 육성 기업·인재 모이는 특례시 만들 것”

고양특례시청 전경

민선 9기 취임과 함께 시민과의 소통 방식을 바꾸고 고양의 산업 지형을 다시 그리는 데 속도를 내고 있는 민경선 고양시장.

‘열린 고양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는 한편 항공우주와 의료·바이오 그리고 K-컬처에 AI를 접목해 고양을 일자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족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을 ‘좋은 일자리’에 두고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민경선 시장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열린 고양 프로젝트’ 민선9기 1호 결재
시민 소통 강화… 실제 행정·정책 반영
좋은 일자리 통해 자족도시 전환 구상

-취임 후 ‘열린 고양 프로젝트’를 비롯해 시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과 성과는?

“민선9기 1호 결재로 ‘열린 고양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본격화했다. ‘고양고양이’가 공식 SNS 누적 조회수 260만 회를 넘기며 큰 호응을 얻었고 시장 직통 문자폰에도 8월까지 4천34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생활 불편부터 정책 제안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다.

시정회의도 보고 중심에서 토론 중심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대학과 병원에 이어 산하기관까지 참여 범위를 넓혔으며 시장실 이전과 온라인 타운홀 미팅도 추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소통의 횟수가 아니라 시민 의견이 실제 행정과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은?

“고양시는 오랜 기간 베드타운에 머물렀다. 자족도시로 전환하려면 도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과 일자리를 갖춰야 한다. 항공우주와 의료·바이오 그리고 K-컬처에 AI를 접목하고 대학과 병원 등 지역의 역량을 연결하는 ‘일자리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 기반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고양경제자유구역과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투자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과거 투자 의향을 보였던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다시 확인해 산업 기반이 실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항공우주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발전 전략은?

“고양시는 한국항공대학교라는 전문 인력과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고 UAM 실증을 위한 인프라도 조성되고 있다. 이를 단순한 교육·연구 자산에 그치지 않고 산업 성장으로 연결하겠다. 7월 항공대와 ‘항공우주 산학융합 거점도시 비전선포식’을 열고 협력을 공식화한 것도 같은 이유다.

2027년 준공 예정인 ‘K-UAM 수도권 실증센터’와 수도권 최초 UAM 종합 실증 버티포트 그리고 항공대 활주로와 고양드론앵커센터를 활용해 인재 양성에서 연구개발과 기업 유치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들겠다. 정부와 공공기관·군·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해 고양의 항공우주 경쟁력을 높이겠다.”

-의료·바이오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이유와 전략은?

“고양시는 대형 병원과 의료 인프라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제는 이를 단순한 의료서비스 기반에 머물게 하지 않고 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대학 그리고 기업을 연결해 연구개발과 기업 유치가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겠다.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데이터센터와 동국대 BMC의 연구·임상·창업 역량은 중요한 기반이다. 관내 주요 병원과 대학의 역량도 하나로 연결해 국책사업 유치와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 여기에 AI 바이오와 ‘AI 글로벌 허브’를 결합하면 고양의 의료·바이오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K-컬처를 정상화하고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은?

“가장 먼저 K-컬처밸리를 정상화해 아레나를 포함한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대형 공연과 문화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기반을 만들겠다. 교통망 확충만으로는 지역 경제가 성장하기 어렵다. GTX 등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고양에 와서 머물고 소비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BTS RM과 고양시의 인연을 비롯해 리센느와 ‘고양고양이’ 등 지역의 문화자산도 적극 활용하겠다. 대형 공연과 음식·관광을 연결하고 의료기관의 특화 분야를 활용한 의료관광까지 결합하면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릴 수 있다. 공연과 전시·축제·관광이 이어지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주력 산업에 AI 접목… 경쟁력 강화
‘고양고양이’ 등 문화자산 적극 활용
“목표는 일자리 제대로 챙긴 시장”

-‘유엔 글로벌 AI 허브 유치’ 전략과 기대효과는?

“AI는 항공우주와 의료·바이오 등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확장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자율비행과 UAM부터 AI 진단과 신약 개발까지 산업 간 융합 가능성이 크다. ‘유엔 글로벌 AI 허브’ 역시 단순히 국제기구 시설 하나를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8월 유치 선언식을 시작으로 추진단과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범시민추진위원회와 국제기구 유치 포럼도 준비하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와 AI·데이터센터 그리고 의료·바이오 인프라를 활용해 AI 정책을 실제 도시에서 검증하는 ‘글로벌 AI 실증도시’로 발전시키겠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한다면 기업의 국제 공동 R&D와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임기 동안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와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시민들이 가장 먼저 ‘우리 동네에도 좋은 일자리가 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다. 출퇴근 30분 단축을 약속했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민들이 굳이 멀리까지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

일자리 숫자보다 청년과 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 첨단기업과 연구소가 들어오고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으면 지역 인재가 다른 도시로 떠나지 않고 고양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다. 4년 안에 모든 산업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기업 하나에서 시작해 좋은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변화를 차근차근 만들어 ‘민경선 시장이 일자리만큼은 제대로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metroseoul.co.kr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약력

제12대 민선9기 경기도 고양특례시 시장(現)
경기교통공사 사장
3선 경기도의원 (8, 9, 10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책특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정책자문위원
이재명 경기지사인수위 교통대책특위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민경선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7월 1일 시청 집무실에서 민선9기 1호 결재를 하고 있다.

민경선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달 18일 고양은평선 화수역 신설 예정지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민경선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5일 ‘2026년 제4회 고양특례시장기 아름다운 동행 걷기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주류 출고량, 외환위기 이후 최저
업계 '저도주·무알코올' 체질개선

젊은 소비층 음주억제 흐름 '뚜렷'
취향·컨디션 반영 '미식소비' 이동
"프리미엄·차별화 전략 중요해져"

국내 주류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음주를 줄이고 자기관리와 취향을 중시하는 소비 변화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국내 주류 출고량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류업계는 알코올 도수를 낮추고 무알코올 제품군을 확대하는 등 체질 개선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주류 출고량 300만㎘ 밑으로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류 출고량은 298만7000킬로리터(㎘)로 집계됐다. 국내 주류 출고량이 300만㎘를 하회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이다. 소비자들의 월평균 음주 빈도는 8.8일, 하루 평균 음주량은 6.6잔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주류 소비 침체의 중심에는 MZ세대(20~30대)를 비롯한 젊은층의 음주 방식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리서치 테크 기업 오픈서베이의 'MZ세대 주류 트렌드 리포트 2026'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내 MZ세대의 주류 음용률은 67.2%로 2024년 대비 4.9%포인트 감소했으며, 월평균 음용 횟수도 6.4회로 줄었다.

젊은층이 술자리를 줄인 가장 큰 원인으로는 '건강 중시(28.6%)'와 '고물가·취업난에 따른 경제적 부담(27.9%)'이 꼽혔다. 과거 취할 때까지 마시던 집단 회식이나 습관적인 술자리 대신 운동이나 유튜브·OTT 시청, 휴식 등 개인 여가 활동을 즐기는 문화가 정착한 영향이다. 음주 문화 자체가 '취하기 위한 소비'에서 '취향과 컨디션을 챙기는 미식 소비'로 재편된 셈이다.

◆"도수 내리고, 알코올 빼고"

소비자들의 음주 억제 흐름 속에서 주류업계는 제품 다변화와 체질 개선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우선 주류 대기업들은 제품의 알코올 도수를 내리는 '저도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가 대표 소주 브랜드인 '참이슬'과 '처음처럼'의 도수를 15.7도로 내린 데 이어, 맥주 시장 강자인 오비맥주도 15도 소주 신제품 '찰랑'을 출시하며 소주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알코올이 전혀 없거나 적게 들어간 '무알코올·비알코올'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MZ세대의 무알코올 주류 음용 경험률은 77.4%에 달하며, 최근 1개월 내 음용 비율(33.3%)도 2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술을 자주 마시는 헤비 드링커 집단에서도 숙취 관리와 분위기를 위해 무알코올을 찾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에 맞춰 롯데칠성음료는 비알코올 맥주 브랜드 '클라우드 논알콜릭'에 시트러스 과일향을 더한 한정판 '클라우드 논알콜릭 레몬 라임'을 선보이며 젊은 여성 소비층과 자기관리족 공략에 나섰다.

◆호텔가도 '고급 논알콜' 대열 합류

유흥 목적의 음주가 줄고 주류 소비가 미식의 영역으로 옮겨가면서, 주요 특급 호텔 바(Bar) 역시 고급 과실과 허브, 차(Tea) 등을 활용한 전용 논알콜 칵테일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포시즌스 호텔 서울의 스피크이지 바 '찰스 H.'는 천안 배 주스와 모과, 재스민 티 스파클링을 조합하고 지역 특산물인 호두과자를 곁들인 '오차드 피즈'를 선보이며 지역색을 더한 논알콜 메뉴를 강화했다. 조선 팰리스의 '1914라운지앤바' 역시 참외와 바닐라 향을 담은 하이볼 스타일의 '참외', 시그니처 원두를 활용한 '벨벳 브라운' 등 5종의 논알콜 라인업을 갖췄다.

업계 관계자는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음주 목적과 주류 선택 기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향후 주류 시장에서는 저도주와 무알콜 라인업 확대는 물론, 개인의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리미엄 및 차별화 전략이 생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슈퍼, 전국 170개 점포 퀵커머스 서비스

쿠팡이츠 협업… 1시간 이내 배송
치킨·김밥 등 3000종 주문 가능

롯데슈퍼가 쿠팡이츠와 협업해 퀵커머스 서비스를 도입한다.

롯데슈퍼는 7일부터 전국 170여개 점포에서 퀵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한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점포망을 활용해 신선식품과 생활필수품 등을 주문 후 1시간 이내 배송하는 방식이다.

퀵커머스 운영에는 쿠팡이츠의 배달 인프라를 활용한다. 롯데슈퍼가 오프라인 점포와 상품을 제공하고 쿠팡이츠가 배송을 담당하는 구조다.

고객이 쿠팡이츠 앱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롯데슈퍼 직원이 매장에서 상품을 직접 골라 포장하고 배달원이 고객에게 배송한다. 주문 접수 후 매장 직원이 15분 이내 상품 피킹을 진행하며, 매장과 고객 간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문 후 1시간 이내 배송을 목표로 한다.

지난 4일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슈퍼 신천점에서 롯데슈퍼 직원이 배달 기사에게 주문 상품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롯데쇼핑

서비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점포별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주문 가능한 상품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약 3000종이다. 치킨과 김밥, 샌드위치 등 델리 상품도 판매한다.

최소 주문금액을 낮춰 1~2인 가구의 소량·즉시 장보기 수요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근거리 점포망과 쿠팡이츠의 배송 인프라를 결합해 퀵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한다"며 "운영 성과와 고객 반응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현대百, '더현대 하이' 선물상품·입점 브랜드 확대

여행·예술 등 바이어 선정 상품 선봬

현대백화점이 프리미엄 큐레이션몰 '더현대 하이(Hi)'를 통해 추석 선물 상품을 확대한다.

현대백화점은 추석 선물세트 판매 기간 더현대 하이를 통해 온라인 명절 선물 품목과 입점 브랜드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 100여 개였던 온라인 선물 상품은 올해 700여 개로 늘리고, 입점 브랜드도 30여 개에서 100여 개로 3배 이상 확대했다. 여행·예술·미식 등 5대 핵심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현대백화점 바이어가 선정한 상품을 선보인다.

온라인 구매와 오프라인 수령을 연계한 O2O 서비스도 운영한다. '몽지람 수공반 대사관', '몽지람 수공반' 등 한정판 주류를 온라인에서 결제한 뒤 지정한 백화점 매장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스토어픽'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쇼핑 어시스턴트 '헤이디(HEYDI)'를 활용한 선물 추천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객이 수신자의 연령대와 예산, 선물 목적 등을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 더현대 하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오뚜기, '하루강황' 론칭… 건강 습관 제안

백세강황환, 레몬진저샷 등 3종 구성

오뚜기가 강황을 활용한 건강 관련 제품군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고 시장 확대에 나선다.

오뚜기는 강황 브랜드 '하루강황'을 론칭하고 김소형 한의학 박사를 모델로 기용한 신규 TV 광고를 7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하루강황'은 '백세강황환', '레몬진저샷', '강황가루' 등 3종으로 구성된다. 환 형태의 제품부터 액상과 분말 제품까지 제품 형태를 다양화해 강황을 섭취하거나 음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에서는 '건강은 하루하루의 습관이니까'라는 메시지를 앞세운다. 김소형 박사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오뚜기 카레 광고 모델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오뚜기와 약 17년 만에 다시 광고 모델로 인연을 맺게 됐다.

오뚜기 하루강황 TV CF 캡쳐 /오뚜기

오뚜기 관계자는 "'하루강황'은 강황을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한 브랜드"라며 "신규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제품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쿠팡, '쿠팡안심케어' 보험 서비스 고도화

가구 상품 도입… 로켓설치 연계 계획

쿠팡이 가전·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쿠팡안심케어' 보험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7월 가구 안심케어 보험을 도입했다. 쿠팡에서 구매한 가구가 외부 충격으로 파손되거나 제조사의 기본 품질보증 기간이 끝난 뒤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보상하는 서비스다. 보장 기간은 제조사 기본 보증 기간을 포함해 배송 완료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이다.

침대나 소파의 프레임 및 다리 등이 외부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최대 2회까지 수리비를 지원한다. 옷장 경첩이나 서랍장 레일 등에서 기능상 결함이 발생하면 제조사 보증 기간이 끝난 뒤에도 총보상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수리비를 보장한다.

고객은 보상 한도를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보험 가입 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구성됐다.

보험금은 수리를 마친 뒤 롯데손해보험 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수리는 제조사가 공식 지정한 서비스센터나 협력사가 담당한다.

쿠팡은 현재 일룸, 까사미아, 한샘, 데스커, 시디즈 등 사후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가구 브랜드를 대상으로 해당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적용 브랜드를 확대하고 가구 배송·설치 서비스인 '로켓설치'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스타벅스코리아, 14일간 '라떼 위크' 운영

50% 할인, 사이즈 업, 1+1 등 혜택

스타벅스 코리아가 라떼 음료를 대상으로 할인과 1+1, 사이즈 업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라떼 위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은 스타벅스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하루 한 차례 '룰렛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룰렛 참여 고객에게는 ▲이벤트 음료 50% 할인 ▲30% 할인 ▲사이즈 업 ▲1+1 ▲별 1개 중 하나가 무작위로 제공된다. 구매 없이도 룰렛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급된 쿠폰은 당일 대상 음료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이벤트 대상은 총 10종이다. '카페 라떼', '바닐라 라떼', '스타벅스 돌체 라떼', '플랫 화이트', '코르타도' 등 커피 베이스 음료와 '얼 그레이 바닐라 티 라떼', '제주 말차 라떼' 등 티 베이스 음료가 포함됐다. 가을 시즌 음료인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와 '호지 글레이즈드 티 라떼'도 대상에 포함된다.

스타벅스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커피뿐 아니라 티를 활용한 라떼까지 제품군을 확대하고 소비자 선택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에이블리, 'T1 IN THE SKY' 티켓 판매

에이블리가 글로벌 e스포츠 기업 T1과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가 선보이는 체험형 전시 'T1 IN THE SKY' 티켓 패키지를 단독 얼리버드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에이블리는 오는 21일까지 'T1 IN THE SKY' 티켓 패키지를 앱 내 '에이블리 플레이스'에서 판매한다. 패키지는 전시 기간 서울스카이 입장권과 선수별 랜덤 캔배지 1종으로 구성됐다. 구매 고객은 전시 관람 후 서울스카이 지하 1층 스페셜 스토어에서 캔배지를 수령할 수 있다.

에이블리는 지난 7월 공식 출시한 에이블리 플레이스를 통해 공방과 베이커리, 클래스, 레저 이용권, 전시회 티켓 등 오프라인 체험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T1 전시 티켓 판매를 통해 e스포츠 관련 체험 상품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

/김서현 기자

“책갈피 샀는데 빵이 덤”… 편의점 굿즈 열풍에 매출 ‘껑충’

GS25 ‘민음사빵’ 품절 대란
굿즈 포함 상품 매출 127% 늘어

CU 올해 굿즈 포함 상품 80종
가나디 바나나우유 초도물량 완판

세븐일레븐 헬로키티 캐리어 등
일상 활용도 높이는 상품군 확대

이마트24 서브컬처 굿즈 확대

GS25가 출판사 민음사, 캐릭터 IP ‘오늘의 귀여움’과 협업한 빵을 출시했다./우리동네GS 캡처

산리오캐릭터즈, K리그와 세븐일레븐이 출시한 ‘2026 K리그X산리오캐릭터즈’ 협업 상품의 모습. /코리아세븐

편의점 빵을 사기 위해 재고 확인 애플리케이션에 약 10분간 대기열이 생기고, 매대에 놓인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GS25가 출판사 민음사, 캐릭터 IP ‘오늘의 귀여움’과 손잡고 내놓은 ‘민음사빵’을 구하려는 수요가 몰린 결과다. 지난달 21일 출시된 민음사빵은 9월 6일 기준 누적 판매량 64만개를 돌파했다. 제품에 동봉된 투명 책갈피를 모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웃돈 거래까지 나타났다. 편의점 먹거리에 동봉된 작은 굿즈가 단순한 덤을 넘어 상품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7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의 올해 1~8월 굿즈 포함 상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CU는 122.9%, 세븐일레븐은 410% 늘었다.

굿즈를 활용한 상품 수도 확대되고 있다. CU가 올해 1~8월 선보인 굿즈 포함 상품은 80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종보다 14.3% 증가했다. 상품 수 증가폭보다 매출 증가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면서 굿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편의점 매출로 연결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상품을 소비한 뒤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굿즈가 인기를 끌고 있다. CU가 지난해 6월 출시한 ‘가나디 바나나우유’는 출시 이틀 만에 초도 물량 3만개가 완판됐으며 현재까지 약 160만개가 판매됐다. 가나디 캐릭터 얼굴 모양의 뚜껑에 고리를 달아 키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뚜껑은 다른 생수병이나 음료병에 끼우는 리유저블 캡과 병따개로도 활용할 수 있다.

지난 3월에는 프리미엄 그릭요거트 브랜드 ‘요즘(YOZM)’, 일러스트레이터 핑루 작가와 협업한 ‘핑루 그릭 블루베리’를 출시했다. 핑루 작가의 대표 캐릭터 ‘감자숭이’ 히퍼 피규어를 동봉한 상품으로, 출시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모았다.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등에 부착할 수 있는 히퍼 피규어는 스마트폰을 꾸미는 이른바 ‘폰꾸’ 문화와 맞물려 인기를 끌었다. 핑루 그릭 블루베리는 출시 당일 포켓CU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초도 물량도 빠르게 소진됐다. 이후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CU 떠먹는 요구르트 카테고리 매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븐일레븐도 굿즈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캐릭터 자체의 소장 가치에 집중했던 기존 상품에서 나아가 헬로키티 캐리어와 텀블러, 샐러드통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단순한 소장을 넘어 굿즈의 실용성까지 중시하는 소비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마트24는 한 발 더 나아가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 서브컬처 분야로 굿즈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모바일 앱 예약픽업을 통한 인기 애니메이션 피규어·만화책 판매를 시작하고, 플래그십스토어 ‘트렌드랩 성수점’에서는 캐릭터 굿즈 뽑기 상품인 ‘이치방쿠지’를 선보이는 등 관련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가 굿즈 포함 상품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IP에 익숙하고 수집 소비에 적극적인 젊은 소비층이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펴낸 ‘캐릭터산업 백서’에 따르면 국내 캐릭터·라이선싱 시장 규모는 약 5조원에 달한다. 캐릭터 이용을 위해 소비자가 한 번에 지출할 수 있다고 답한 최대 금액은 평균 6만6195원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9만549원, 20대가 6만6463원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

특정 IP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을 찾는 젊은 소비층의 ‘목적형 소비’도 나타나고 있다. 롯데멤버스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엘포인트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대에서는 특정 IP 상품이나 편의점 단독 신상품을 찾아 매장을 방문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특히 특정 IP 상품을 3회 이상 구매한 고객의 매장 방문 일수는 한 차례 구매한 고객보다 3배 이상 많아 IP 상품이 재방문을 유도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유한양행-노바티스, ‘랩시도’ 공동 프로모션

만성 염증·알레르기 유발 물질 감소
경구제 형태, 환자 복용 편의성 갖춰
항히스타민제 환자들에 새로운 대안

지난 3일 (왼쪽부터)유병재 한국노바티스 대표와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가 ‘랩시도’ 공동 프로모션을 기념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유한양행

유한양행이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신약 ‘랩시도(성분명: 레미브루티닙)’ 국내 판권을 확보했다. 전국 병·의원 영업망을 활용해 신약의 시장 안착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유한양행은 지난 3일 한국노바티스와 ‘랩시도’ 공동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랩시도 유통은 유한양행에서 전담하며 종합병원 판촉 활동은 한국노바티스가, 병의원(클리닉) 판촉 활동은 유한양행이 맡는다.

랩시도는 면역세포 활성화 경로에 관여하는 BTK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물이다. 만성 염증 및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 방출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쓰인다. 특히 주사제가 아닌 경구제 형태로 설계돼 환자 복용 편의성까지 갖췄다.

글로벌 임상 3상(REMIX-1·2)에 따르면, 랩시도는 투여 1주 차부터 가려움과 팽진 증상을 개선했고 개선 효과는 52주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4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H1 항히스타민제 치료에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성인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치료제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기존 표준치료제인 항히스타민제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꼽힌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랩시도의 가치를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병재 한국노바티스 대표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는 증상이 반복되고 예측하기 어려워 환자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항히스타민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증상을 충분히 조절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며 “진료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유한양행과 협업해 랩시도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HK이노엔, 세계 첫 의약품 환경성 인증

‘케이캡’ 국제 환경성적표지인증 획득

HK이노엔이 친환경 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국산 신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다.

HK이노엔은 제30호 국산 신약 ‘케이캡’이 경구용 완제의약품으로는 세계 최초로 국제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케이캡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올해 6월 국제 EPD 플랫폼인 ‘EPD-글로벌’에 등록됐다. EPD는 원료 수급부터 제조, 유통에 이르는 제품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정량화해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은 2025년 11월 영국표준협회(BSI)가 의약품 전용 환경성 평가 국제표준(PAS 2090:2025)을 제정한 직후, 국제지속가능인증원(IGSC)의 독립 검증을 거쳐 이뤄졌다.

지난 2일(현지 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EPD-글로벌’과 ‘국제지속가능인증원’이 공동 개최한 EPD 인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HK이노엔

이와 함께 HK이노엔은 케이캡의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들어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공급망 전반의 탄소배출량(Scope 3) 산정과 환경 실사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케이캡의 제3자 검증 EPD 데이터는 국내외 바이어가 제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준을 충족하는 객관적 근거로 활용된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 품질보증 업무에 AI 도입

AX 원스톱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한미 큐 에이전트’ 운영 본격화

한미약품이 국내 대표 빅테크·AI 기업들과 협력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핵심인 품질보증(QA)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한다. 수작업 위주의 방대한 문서 검토를 자동화해 오류를 줄이는 등 독자 신약개발은 물론, 생산 단계에서도 품질과 역량을 고도화한다.

한미약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인공지능 전환(AX) 원스톱 바우처 지원사업’의 제약·바이오 부문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한미 큐 에이전트(Hanmi Q-Agent)’를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되며 1차년도 사업비 약 17억원 중 10억원은 정부가 지원한다.

한미약품은 AI 기술 기업 업스테이지의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솔라’를 기반으로 한미약품 전용 언어 모델을 완성하고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첨단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미 큐 에이전트를 통해서는 삼성SDS 등과 협력한다. 사업 총괄을 맡은 한미약품을 필두로 삼성SDS가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메가존클라우드가 인공지능 기술 구현을 담당한다. 셀렉트스타는 데이터셋 확보, 신뢰성 평가 등 제3자 검증 역할을 수행한다.

한미약품은 평택 바이오플랜트를 전초기지로 삼아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한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의약품 제조만큼이나 규정 준수를 문서로 입증하는 품질보증 공정 등이 핵심 과제다. 실제로 1차년도에는 평택 사업장의 표준작업지침서 약 4000종을 학습시켜 규제 분석 업무 공수를 대폭 줄일 계획이다.

2차년도에는 연간품질평가보고서 초안을 자동 생성할 예정이다. 한미약품 맞춤형 시스템으로 정확성은 물론 보안성까지 갖추는 데 중점을 둔다. /이청하 기자

콜마비앤에이치, ‘비타푸드 아시아’ 성료

亞 최대 건기식 전시회서 솔루션 선봬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개발생산(ODM) 기업 콜마비앤에이치가 아시아 최대 규모 건기식 전시회를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2~4일 태국 방콕 퀸시리킷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타푸드 아시아 2026’ 참가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비타푸드 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 헬스케어 식품 박람회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번 전시에서 ‘하루를 설계하라’를 주제로 종합 건기식 솔루션을 선보였다. 특히 아침(영양·이너뷰티), 낮(활력·집중), 밤(회복) 등 소비자 일상 맞춤형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 팝핑 및 쿨멜팅 분말, 멀티바이알 등 차별화한 제형, 미숙여주, 아쉬아간다추출물 등 고기능성 원료를 다각도로 제안했다. 단순 완제품 전시를 넘어 고객사가 요구에 적극 대응하며 브랜드를 제품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이번 행사 현장에는 이승화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직접 방문해 글로벌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최신 유행을 점검하는 등 해외 주요 고객사들과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청하 기자

HUFS

Where Global Insights Meet

AI Innovation

융합일본지역학부
서인호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김예희

AI를 활용하였습니다.

미래를 여는 한국외대의 트리플 시너지

글로벌캠퍼스 : 성장 엔진

서울캠퍼스 : 정체성 고도화

송도캠퍼스 : 국제화 플랫폼

송도캠퍼스 신설학부 모집
- 글로벌바이오 & 비즈니스융합학부
- 외국인자유전공학부

입학안내
02-2173-2500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GM, 고객 서비스 경쟁력 강화 현장 점검

한국GM이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전기차와 대형차 등 고난도 정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확대해 판매 이후 고객 경험까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4일 수원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현황을 듣고 있다. /한국GM

한국타이어, 한국테크노링 첫 일반 개방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아시아 최대 규모 타이어 테스트 트랙인 '한국테크노링'을 처음으로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한다. 한국타이어는 모터컬처 브랜드 '드라이브(DRIVE)'가 오는 12일 충남 태안 한국테크노링에서 세 번째 카밋 행사 '까쥬(GAS & JUICE by DRIVE)'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KT&G 릴, '2026 브랜드 대상' 9년 연속 수상

KT&G의 궐련형 전자담배 브랜드 '릴(lil)'이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2026 올해의 브랜드 대상' 궐련형 전자담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매년 소비자 설문을 통해 브랜드 충성도와 최선호 브랜드를 선정하고 있다. 사진은 이상인 KT&G NGP 국내사업센터장(오른쪽)이 수상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KT&G

대상

협력사 대금 400억 조기 지급

대상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 400억원을 조기 집행했다.

대상은 거래 중인 중소 협력사 243곳을 대상으로 당초 지급일보다 30일 앞당겨 결제대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추석을 약 3주 앞둔 시점에 대금 지급을 완료해 명절을 앞둔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대상은 협력사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기술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금융 지원과 ESG 컨설팅, 국내외 판로 확대, 임직원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전력거래소

빛가람축제서 지역상생 동참

전력거래소가 9일부터 12일까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12회 빛가람 페스티벌'에 참여해 전남광주 지역사회 활성화에 나선다.

빛가람 페스티벌은 혁신도시 조성 후 해마다 열리는 지역 대표 축제다. 특히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행사로,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 간 연계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진, 4000km 달려 네팔 이재민에 희망 전했다

'긴급구호물자 이송' 수행기관 참여
비상보온담요 총 4만여점 지원

한진 관계자들이 인천공항 글로벌물류센터(GDC)에서 네팔 대홍수 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물자를 출고하며 수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진

한진이 최근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긴급 구호물자 수송 지원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한진은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주관하는 '네팔 대홍수 피해 긴급구호물자 이송 사업'의 물류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구호물자 운송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물품은 코이카 비축물자인 중보온담요 및 비상보온담요 총 4만여 점으로, 현지 이재민들의 체온 유지와 생존 지원에 필수적인 구호물자다.

구호물자 수송은 한진 인천공항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에서 출고 및 보관, 항공 적재 준비 과정을 거쳐 시작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직항편을 통해 네팔 카트만두 공항까지 신속하게 운송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네팔 카트만두 공항까지의 이동거리는 약 4000km로, 직항 항공편으로 약 7시간이 소요된다. 한진은 GDC의 고도화된 물류 인프라와 대한항공의 직항 인프라를 연계해 물품 확보부터 현지 도착까지의 수송 시일을 최소화했다.

한진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네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호물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에 만전을 기했다"며 "앞으로도 한진의 글로벌 물류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 활동에 적극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현대차, 라오스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

정몽구재단, 60명에게 장학금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4일 라오스 국립대학교에서 현지 교육 지원 사업의 첫 장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현대차정몽구재단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라오스를 시작으로 해외 현지 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4일 라오스 국립대학교에서 현지 교육 지원 사업의 첫 장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장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면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라오스 국립대학교 학부생으로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1인당 연간 등록금 200만킵(약 12만원)과 매월 학습장학금 200만킵(약 12만원)을 정규학기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진로 적성 검사와 전문가 멘토링 등 진로 탐색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재단은 라오스의 고등교육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현지 교육 지원의 첫 대상 국가로 선정했다. 라오스의 중위연령은 약 25.3세인 반면 고등교육 총취학률은 2023년 기준 약 14.9%다.

이번 사업은 아세안 인재의 한국 유학을 지원해 온 기존 'CMK 글로벌 스칼러십'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지 청년들이 자국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라오스의 젊은 세대가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회를 넓히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며 "장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며 자신의 가능성을 구체적인 진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

대한항공·델타항공, 도심에 벽화 선물

임직원 80명 벽화 그리기 봉사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임직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울남산초등학교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울남산초등학교에서 델타항공과 함께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대한항공 임직원 50명과 델타항공 임직원 30명 등 총 80명이 참여했다. 학교 주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 임직원들은 항공기와 서울 주요 랜드마크를 소재로 한 스케치를 바탕으로 학교 주변 벽면에 직접 페인트를 칠했다. 벽화 도안 제공과 행사 진행은 국내 NGO 단체인 사단법인 '함께하는 한숲'이 지원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2018년 5월 태평양노선 조인트벤처(JV)를 맺은 이후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CJ대한통운, 'ISO37301' 6년 연속 유지

준법경영 글로벌 표준

CJ대한통운이 기업의 준법경영 체계를 검증하는 글로벌 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6년 연속 유지했다.

회사는 지난 2021년에 물류업계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301' 인증을 6년 연속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2016년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을 설치한 데 이어 2017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운영하는 등 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해왔다.

법규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포털도 구축했다. 임직원 교육도 직급과 업무 특성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신입사원과 승진자, 신임 리더,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하도급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업무 관련 법규에 대한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최신 판례와 주요 규제 동향을 담은 사내 뉴스레터 '컴플라이언스 가제트'도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현장 준법관리 강화를 위해 각 조직의 준법 통제 현황과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는 '컴플라이언스 코디네이터' 제도도 운영한다.

CJ대한통운 장윤석 법무실장은 "임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준법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기보, 신임 김남재 상임이사 선임

중기벤처 혁신성장 기여 기대

기술보증기금이 신임 김남재 상임이사(사진)를 선임했다.

7일 기보에 따르면 김 신임 이사는 1973년생으로, 문태고등학교와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사, 경농·조비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김 이사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과 벤처캐피털에서 경력을 쌓고, 다수 기업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는 등 회계·재무 및 투자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기업 경영 경험을 갖춘 인물이다.

김 이사는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기술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는 2028년 9월 6일까지 2년이다. /김승호 기자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출(9월4일자) △외교부 미국 주재관 김민정 ◇전보(9월7일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솔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 박희영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예방정책과장 최지운 △식품안전정책국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 이제명

◆**한국예탁결제원** ◇전보(부장) △지역서비스부 부장 박인선 △홍보부 부장 여상현 △리스크관리부 부장 이정욱 △차세대사업실 실장 이형근 △차세대개발실 실장 손영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부서장 △인공지능정부기반본부장 이동철 △인공지능융합본부 인공지능혁신지원단장 어재경

◆**법무부** ◇서기관승진 △법무부 의료과 최정필 △법무부 분류심사과 김은미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이성수

부음

▲한기정씨 별세, 한창만(한국일보 인천본부장)씨 부친상=7일, 부산시민장례식장 501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장지 합천선영. 051-636-4444.

▲조해연씨 별세, 이상돈씨 배우자상, 조성은·조성지·조성아씨 부친상, 공진성(전 HS애드 전무)·서윤식(코트라 비상계획실장)·최영(오스템임플란트 뉴욕법인장)씨 장인상, 공준호(매일경제 기자)·공지유(이데일리 기자)씨 외조부상=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11시 30분. 02-3410-3151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햇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대한홍삼[주]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Since 1996
햇터그룹
Haetter Group

옷, 연결, 그리고 다정한 지구

서 선 미의
기후에세이

후배를 만났다. 한 달에 한 번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후배는 어린 나이지만 품은 가치와 열린 태도, 일에서의 전문성이 존경스러울 정도다. 특히 옷에 대한 후배의 생각은 나에게 지속가능하고도 효과적인 삶의 태도 하나를 알려주었다. 후배는 옷을 거의 사지 않는다. 지인들에게 "입던 옷을 선물받고 싶다"고 먼저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옷을 마련한다.

지난 7월, 후배에게 흰색 니트티와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운동화를 선물했다. 그 중 새빨간 운동화는 발목이 길어 짧은 치마와 아주 잘 어울리는 신발이었다. 그 운동화는 나의 조카가 고등학교 시절 직접 사서 신던 것이었다.

황학동을 찾는 2030 세대가 늘고 있다. 중고 의류를 거래하는 인터넷 플랫폼도 수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곳에서 거래되는 양이 많다는 것은 빈티지가 트랜드가 된 이유도 있겠지만 속을 깊게 들여다보면 집집마다 입지 않는 옷이 넘쳐나는 탓이기도 하다. 심지어 상표조차 떼지 않은 옷들이 옷장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가격이 싸지니 철마다 새 옷을 사게 되고, 버리자니 아까워 서랍장에 내팽개쳐 둔다.

오늘날 거대 패션 트랜드를 지배하는 패스트패션의 그늘은 생각보다 어둡다. 철마다 신제품을 넘어 매주 새로운 스타일을 쏟아낸다. 단 하루 만에 상품이 교체되기도 한다. 유행과 생산의 속도가 점입가경이다. 싼값에 당장 유행하는 옷을 살 수 있다. 바로 그 브랜드들이 패스트패션의 주류를 이룬다. 유행에 눈이 쏠릴수록 소비는 쉼 없이 부추겨진다.

거침없는 소비는 지구가 치를 참혹한 대가로 돌아온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가 바로 이 패션 산업에서 발생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6200만 톤이던 세계 연간 의류소비량은 2030년 1억200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소비자는 평균 5일마다, 영국 소비자는 연간 26.7kg의 새 옷을 산다고도 한다. 그 옷들은 얼마 동안 입혀지고, 어떤 방식으로 버려질까?

패스트패션의 창궐은 물의 위기마저 부른다. 섬유산업에는 막대한 양의 물이 소요된다. 세계자연기금(WWF)은 면 티셔츠 단 1장을 생산하는데 무려 2700리터의 물이 사용된다고 보고했다. 한 사람이 900일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의 양과 같다. 원료인 목화 재배에서 염색과 가공,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 투입된 물을 누적 계산한 '물발자국'의 무게다.

새 옷을 사는 대신 중고 옷을 재사용할 때마다 소나무 세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만큼의 감축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 자리엔 연대가 움튼다. 서로 입던 옷을 교환하거나 선물할 때, 우리 각자는 지속가능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좋아하는 사람의 온기와 사연이 담긴 옷을 내 몸에 덮는 일은 상상만으로도 마음을 데운다. 옷을 주고받은 이와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그 옷을 걸치면 조용하지만 즐거운 대화가 시작된다. 좋은 개인들과 사랑받는 옷들이 어우러질 세상은 마치 이스트를 만난 빵 반죽처럼 보기 좋게 부풀어 오를 것이다.

후배를 통해 알게 되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들락거리지 않아도, 빈티지 숍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우리는 입던 옷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더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다. 다음 만남에서는 후배의 옷을 선물 받게 될 것이다. 그 옷을 걸친 채, 후배가 향했던 삶의 길목마다 더불어 서고 싶다. 그 세월에 어깨를 기대고 함께 걷고 싶다. 옷을 통해 우리는 연결되고 연대한다. 그 연대 속에서 같은 호흡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파란 지구가 성난 열기를 식힌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다정함이 파란 빛을 더 돋우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상생보험은 청구할 때 완성된다

기자 수첩
김 주 형
〈금융부〉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존재 이유를 증명한다. 보험료가 0원이고 가입 절차가 간단해도, 정작 보장이 필요한 순간 권리를 몰라 청구하지 못한다면 안전망은 서류 위에만 남는다.

보험업권과 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을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사업 규모는 보험업권 상생기금 126억원과 지자체 재원 14억원을 합친 140억원이다. 6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신용생명보험은 사망이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발생 때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한다. 손해보험은 휴업손해·화재·피싱·폭염 등 지역별 위험을 보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방향은 옳다. 소득이 불안정하고 작은 사고에도 생업이 흔들릴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는 분명한 가입 장벽이다. 전북 풍수해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 상품을 별도 신청 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 가입되도록 한 것도 가입 사각지대를 줄이는 의미 있는 설계다.

하지만 자동 가입이 자동 보상을 뜻하지는 않는다. 보험금은 대상자가 지정된 보험사 접수처에 직접 청구해야 하고, 보험 가입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증빙해야 한다. 가입 단계의 문턱을 낮췄더라도 청구 단계에 높은 문턱이 남아 있다면 제도의 효과는 반감된다. '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만든 보험이 '청구 사각지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당국도 이 간극을 의식해 문자·알림톡과 현장 홍보,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대상자 안내 등을 예고했다. 필요한 조치다. 다만 안내 계획이 있다는 것과 안내가 실제 대상자에게 닿는 것은 다르다. 알림을 보냈다고 제도를 안다고 볼 수 없고, 가입 사실을 안다고 사고 뒤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험금 지급에는 사고와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보험업권 기금과 지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부정수급을 막는 장치도 갖춰야 한다. 그렇다고 확인에 따르는 책임과 비용을 모두 가입자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상생은 상품 이름에 붙인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가입 문을 넓힌 정책이 보상의 마지막 문턱까지 낮출 때 비로소 안전망이 된다. 상생보험의 성적표는 몇 명을 가입시켰는지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 몇 명이 제때 보장받았는지에 적혀야 한다. /gh471@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8일 (음 7월 2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기분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60년생** 당분간 여행이나 출장은 다음으로 미루세요. **72년생**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84년생**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소 **49년생** 내일은 기회가 찾아 올 것입니다. **61년생** 현 상태를 사수하세요. **73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85년생** 달빛이 하늘에 훤하니 하늘과 땅이 다같이 훤합니다.

호랑이 **50년생** 큰 일을 하려는 사람은 작은 근심을 버려야 합니다. **62년생** 바라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74년생** 동서남북이 모두 길방입니다. **86년생** 침착성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토끼 **51년생**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63년생** 계획을 변경하지 말고 원하는대로 추진해 나가세요. **75년생** 당분간 일을 확장하려 하지 마세요. **87년생** 여색을 조심하세요.

용 **52년생**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일찍 귀가함이 좋겠습니다. **64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일들이 만사해결 됩니다. **76년생** 바라는 소원이 너무 원대합니다. **88년생** 지금은 운대가 약합니다.

뱀 **53년생**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65년생** 목표를 가지고 생활해 나가야 발전이 있습니다. **77년생** 욕심을 버리고 그동안의 일을 정리할 때 입니다. **89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말 **54년생** 실타래가 얽혀 풀기가 어렵습니다. **66년생** 마음이 심란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78년생** 재물이 생기지 않으면 슬하에 영화가 있을 것입니다. **90년생** 방황을 하던 중 윗사람이 돕습니다.

양 **55년생** 외출은 가급적 삼가세요. **67년생**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다지세요. **79년생** 건강 관리에 각별히 조심하세요. **91년생** 때를 만나 움직이니 서둘러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원숭이 **56년생** 시간이 흐를수록 이루어집니다. **68년생** 다툼을 하려거든 내일로 미루세요. **80년생** 감기 조심하고 음식을 삼가 해야 합니다. **92년생** 쌍방이 만족할만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닭 **57년생**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흘러갈 것입니다. **69년생** 믿음을 주는 신용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81년생**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머지않아 곧 호전됩니다. **93년생**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개 **58년생** 자존심을 버리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세요. **70년생** 따질만한 일이 아닙니다. **82년생** 비굴함은 패함보다 못합니다. **94년생** 파트너를 돌보아 주세요. 정이 돈독해 집니다.

돼지 **59년생** 앞길이 막막해 망망대해에 첩첩산중입니다. **71년생** 긍정적인 사고로 소원을 염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3년생**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95년생** 배움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김상회의 四季

운명의 크레바스

크레바스(Crevasse)란 빙하가 흘러내릴 때 깨어져 생기는 틈을 말한다. 이 크레바스는 눈에 덮여 감춰져 있을 때도 많아서 빙하 탐험가와 연구자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한다. 아문센과 스콧의 남극 탐험대를 위협한 사고이기도 하여 대원 중 한 명이 이 크레바스에 떨어지는 사고를 세 번이나 당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눈이 쌓여 빙하의 암체 부분으로 가려져 있을 수 있어 겉으로는 평평해 보이지만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수십 미터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지형인 크레바스는 탐험가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의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다. 크레바스의 틈은 깊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고, 길게는 수백 미터 이상 이어지기도 한단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크레바스가 있다. 존재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궁극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지만, 생을 받아 태어나 마치는 그 과정 과정에 예측치도 못 한 굴곡을 겪지 않는 이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붓다는 존재는 '고(苦)'임을 한 마디로 일갈한 것이다. 사주팔자로 얘기하자면 운(運)에 흉신이 들 때가 운기의 크레바스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크레바스도 그 깊이가 낮게는 몇 미터에서 수십 미터가 되듯 흉 운의 강도에 따라 굴곡의 깊이와 크기가 다르게 다가온다. 운기가 약할 때 드는 악 삼재는 깊은 크레바스에 빠진 것처럼 되는 것이고 만약 운기가 괜찮을 때 드는 삼재는 그나마 흉 운에서 수월하게 벗어나기도 한다. 십 년마다 드는 대운이 호운인지 악운인지에 따라 삼재나 여러 흉길신의 작용 역시 그러하다. 이러할 때 사주 구조에 천을 귀인이나 천덕, 월덕과 같은 길신이 있다면 그런대로 인생의 고비나 위기를 수월하게 넘기게 된다. 만약 그러한 길신도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흉 운의 크레바스를 잘 넘길 수 있을까?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90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9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서울 중·고생 교통비 연 16만원 지원… 교육비 부담 낮춘다

서울교육청, 공약추진위 백서 전달
중·고생 16만4000명 지원 검토
초·중 체험학습비 최대 10만원
모든 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 추진
세부과제는 현장 검토 거쳐 확정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 2기 비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근식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학교의 심리·정서 안전망은 강화한다. 향후 4년간 중·고등학생 등교 교통비를 연간 최대 16만원 지원하고, 초·중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과 모든 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제24대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인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공약 추진 방향과 정책 제안을 담은 백서를 전달받았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약의 현장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5대 영역, 15개 약속,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공약 이행 방향을 제안했다.

우선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중·고등학생에게 평일 수업일 등교 교통비를 하루 한 차례, 연간 최대 16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 약 16만4000명이 지원 대상으로 추산됐으며, 연간 소요 예산은 약 262억원이다. 특수학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청은 별도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기후동행카드나 티머니 등 기존 교통카드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생이 등록한 교통카드의 평일 오전 등교 시간대 이용 내역을 확인해 지원하거나 사후 환급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초·중학생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

고교 무상교육을 지속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밀학급 해소, 학교 밖 청소년 및 이주배경학생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초·중학생에게는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를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지원한다. 2027학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해 2030학년도까지 대상 학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도 강화한다. 전문상담인력을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심리·정서 치료를 확대하는 한편, 마음건강 플랫폼을 통해 예방·개입·회복으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다중 학습안전망과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강화해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유아교육의 생애 첫 기본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생과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강화, 서울형 교수학습 플랫폼 'SEN스쿨' 고도화 등이 담겼다. 학교·마을·도시를 잇는 '독서서울' 생태계를 구축하고 독서·토론·인문학 교육과 예술·체육 활동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생태전환교육 전면화와 농촌유학 활성화, '서울형 부모학교 365' 및 권역별 부모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교육자원 연계 플랫폼 운영 등이 제안됐다.

위원회는 서울교육의 새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제시했다. 기본교육은 교육기본권의 범위를 유아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평생학습까지 넓힌 개념이다. 협력교육은 교실과 교육행정,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대를 통해 경쟁을 넘어 포용과 협력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서울교육의 교육지표를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로 확정했다.

다만 백서에 담긴 세부과제가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여건과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제별 추진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학생·교사·학부모·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대토론회를 열어 공약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도 수렴한다.

김재형 공약추진위원장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며 "위원회가 마련한 교육비전과 정책 제안이 서울교육의 약속을 실현하는 데 의미 있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백서에 담긴 교육공동체의 의견과 제안을 소중히 살피고, 학교 현장의 여건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서울교육의 약속을 책임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김수정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주택공급 속도… 착공44%·인허가6% ↑

착공 1만9507호, 3년 평균 웃돌아
정비사업 착공, 아파트 81% 차지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크게 늘어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올해 들어 나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공사 단계에 들어간 착공 물량이 큰 폭으로 늘면서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사업 현장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2만8634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987호보다 6.1% 증가했다. 최근 3년 7월 누계 평균인 2만948호와 비교하면 36.7% 늘어난 규모다.

아파트 인허가는 2만3,480호로 전년 동기 2만3,852호보다 1.6% 감소했지만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1만8,395호보다는 27.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인허가는 1만9447호로 전체 아파트 인허가의 82.8%를 차지했다.

올해 인허가를 받은 1000세대 이상 주요 단지는 거여 새마을(1678호), 독바위역세권(1481호), 한남5구역(2592호), 가재울7구역(1426호), 잠실주공5단지(6411호) 등이다. 한동안 위축됐던 비아파트 인허가도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비아파트 인허가는 5154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35호보다 64.4% 늘었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2553호와 비교하면 101.9% 증가해 두 배를 넘어섰다.

실제 주택 건설에 들어간 착공 물량의 증가폭은 더 컸다. 올해 7월까지 서울의 주택 착공은 1만9507호로 전년 동기 1만3508호보다 44.4% 증가했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1만4497호와 비교해서도 34.6% 많았다.

아파트 착공은 1만4995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1% 늘었다. 이 가운데 정비사업 착공은 1만2211호로 전체 아파트 착공 물량의 81.4%를 차지했다. 올해 착공한 1000세대 이상 주요 단지로는 흑석11구역(1515호), 신림2구역(1430호), 중계본동(3178호) 등이 있다.

비아파트 착공도 4512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94호보다 80.9% 증가했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3043호와 비교하면 48.3% 많았다.

서울시는 인허가와 착공 증가세를 실제 입주 물량 확대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7호선 장암역 내달 한 달간 문 닫는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연결공사
도봉산역~장암역 무료 셔틀 운행

지하철 7호선 장암역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에 따라 10월 2일부터 30일까지 휴업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암역 휴업 및 대체교통수단 마련' 계획을 발표하고, 이 기간 도봉산역환승센터~도봉차량기지 정문~장암역 정류장 구간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를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한다고 밝혔다.

배차 간격은 평일 7~15분, 주말과 공휴일 10~20분이다. 도봉산역에는 현장 안내 요원을 추가 배치해 승차 위치를 안내하고, 경기도와 의정부시, 양주시 누리집과 현수막 등을 통해 휴업 일정과 대체 교통수단도 사전에 알릴 계획이다.

현재 장암역은 7호선 종점으로, 도봉차량기지 안에서 간이역사 형태로 운영중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와 장암역을 연결하는 건설에 맞춰 현재 장암역을 철거하고 차량기지 안에 새 장암역을 지을 계획이다.

공사중에도 열차 운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현재 장암역 출입구 옆 부지에 임시 장암역을 설치한다. 임시 장암역 개통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약 한 달간 휴업하고 시험 운행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경희대, SoC 클럭회로 안정성·효율 개선

주파수 교란 때만 보조회로 작동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 전자공학부 임영현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시스템온칩(SoC)에 쓰이는 클럭 회로의 안정성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높인 기술을 내놨다.

경희대는 임영현 교수 연구팀이 낮은 주파수의 기준 신호를 증폭해 통신 칩에 필요한 고주파 클럭을 만드는 회로인 위상 고정 루프(PLL)의 성능을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IEEE가 발간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 분야 학술지 'IEEE Journal of Solid-State Circuits(JSSC)'에 게재됐다.

저잡음·저전력이 강점인 서브샘플링 PLL(SSPLL)은 6G·AI 반도체의 클럭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전원 잡음 같은 순간적 주파수 교란에도 동기(lock)가 쉽게 풀리고 복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조 회로(FLL)를 상시 작동시키는 방식이 쓰였지만, 10GHz 이상의 고주파에서 쉼 없이 도는 회로가 오히려 SSPLL의 저전력 장점을 갉아먹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평소에는 최소 전력으로 대기하다가 주파수 교란이 감지될 때만 작동하는 '이벤트 구동 주파수 고정 루프(ED-FLL)'와 저전력 하모닉 락 검출기를 제안했다. 그 결과 대기 상태의 감지 전력을 기존 대비 최대 18분의 1 수준인 0.25mW로 낮추면서 락인 범위는 기준 주파수의 약 36배인 1.79GHz로 넓혔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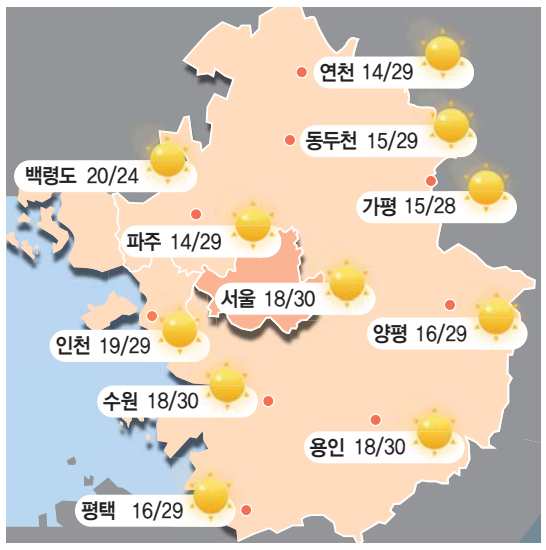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08 | 해짐 / 18:51

9월 8일 (火)
음력 : 7월 27일

수도권 날씨
18~30℃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콜레라 백신 2.1만회분 급파… 수인성 질병 확산 우려
▲美·이란 유조선 공격에 국제유가↑… 브렌트 97달러 넘어 /사진 뉴시스
▲트럼프 "이란은 실패한 국가"… 하르그섬 공격 이미지도 게시
▲젤렌스키·美특사 "3자회담 재개"… 돌파구 없었지만 외교 복귀
▲"日다카이치, 이달 개각서 고이즈미 방위상·모테기 외무상 유임"
▲튀르키예, 국방비 3년간 229% 인상 계획 밝혀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5990호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책갈피 샀는데 빵이 '덤' 편의점 굿즈 열풍

L2

한진 네팔 이재민에 희망 전해

L4

가전 넘어 사람·자연으로… '더 나은 삶' 여는 따뜻한 기술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 ESG 경영시대

LG전자

가전의 역할은 집 안의 편리함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사람의 손길이 닿는 제품을 만들며 쌓은 기술은 가전 밖에서도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 청년의 자립을 돕고 가전의 사용 문턱을 낮추는 한편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는 데까지 활용되고 있다. LG전자는 '모두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All)'이라는 지향점 아래 기술과 경험을 사람과 환경으로 확장하고 있다.

LG전자는 에티오피아 청년들에게 전기·전자 기술을 가르쳐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30년 가까이 축적한 소재 기술을 바다숲 복원에 활용하는 동시에 장애인과 시니어의 불편을 제품에 반영하며 가전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술의 쓰임을 사람과 환경으로 넓히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LG전자가 지속가능경영 비전으로 내세운 '모두의 더 나은 삶'과 맞닿아 있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 이어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자립으로 결실을 맺는 한편 가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환경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등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 기술 가르쳐 자립 지원…에티오피아 취·창업률 100%

LG전자의 사회공헌은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현지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운영하는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다. LG전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에티오피아 정부 등과 협력해 지난 2014년 학교를 설립하고 전기전자와 정보기술(IT) 분야 직업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제10회 졸업생 68명이 학교를 떠나 사회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들을 포함한 누적 졸업생은 679명이다. 졸업생의 취·창업률은 100%로 졸업생 모두가 IT 기업 등에 취업하거나 학교에서 익힌 기술을 토대로 창업했다.

지원은 졸업과 함께 끝나지 않는다. 우수 졸업생에게는 LG전자 중아서비스법인의 채용 전환형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교내 창업지원센터에서 법률과 마케팅, 사업 관리 등에 필요한 실무교육과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교육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점심 식사와 통학버스도 지원한다. 매년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학생을 선발한 뒤 기술교육부터 취업과 창업까지 연결해 일회성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성과는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는 올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개발협력(ODA)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 가전 연구 소재, 30년 만 바다 살리는 기술로

LG전자가 축적한 기술은 공장과 제품을 넘어 자연 생태계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8월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바다숲 조성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경남 고성군 해역의 해양생태계 복원에 나섰다. 오는 2029년까지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해역 약 1.5㎢에 총 13억원을 투입해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암반이 하얗게 변하는 '갯녹음' 현상으로 훼손된 해양생태계를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갯녹음 암반을 복원하고 바닷말 군락을 조성하는 한편 해조류를 먹는 성게 등 조식동물을 제거하고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바다숲 복원에는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기능성 신소재 'LG 마린 밸런스(LG Marine Balance)'가 활용된다. 물과 만나면 미네랄 이온을 방출해 해조류와 염생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성분을 일정한 양과 속도로 공급하는 소재다.

LG전자가 바다숲 복원에 활용하는 소재 기술은 가전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됐다. LG전자는 1996년부터 유리 파우더 소재를 연구하며 항균과 탈취, 수질 개선 등 가전에 필요한 기능성 소재 기술을 확보해왔다. 이렇게 쌓은 소재 연구 역량이 약 30년 뒤 해조류 생장을 돕고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기술로 활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LG전자는 사용 환경에 따라 미네랄 성분의 방출량과 속도를 조절하는 독자 기술도 확보했다. 소재의 성분과 함량은 물론 비즈나 칩 등 형태까지 달리할 수 있어 해양과 연안 생태계에 맞춰 적용할 수 있다.

이를 바다숲 조성에 활용해 해조류 서식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흡수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능성 신소재의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도 강화한다. 해양생태계 복원에서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기업간거래(B2B) 사업으로 연결해 환경적 가치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함께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 장애인에서 시니어까지…누구나 쓸 수 있는 가전으로

LG전자는 환경 분야에서도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외 사업장 직접·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은 84만2000톤으로 2030년 목표인 87만8000톤을 이미 밑돌았다.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도 97.3%로 2030년 목표치인 95%를 넘어섰다.

폐전자제품 회수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56개국 91개 지역에서 64만톤을 회수하면서 2006년 이후 누적 회수량은 565만톤에 달했다. 이 같은 성과로 LG전자는 올해 S&P 글로벌의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에서 3년 연속 '톱 1%'에 선정됐다.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목소리를 개발 과정에 직접 반영하며 접근성도 높이고 있다. 고객 참여형 접근성 커뮤니티 '볼드 무브(Bold Move)'를 통해 지난해 약 200건의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한 데 이어 올해는 장애인 중심이던 참여 대상을 시니어와 비장애인까지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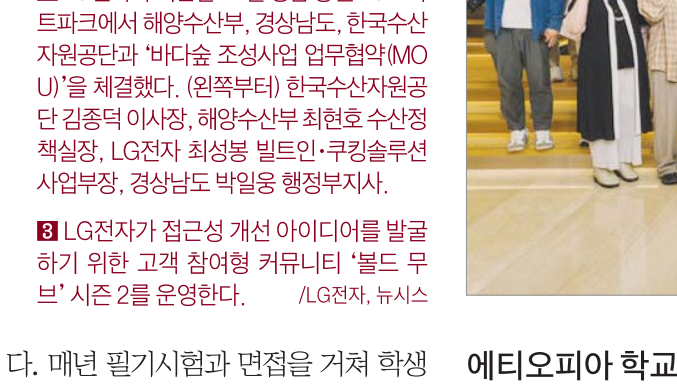
이 같은 방식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중국 IT·테크 매체 '린커지'는 최근 LG전자의 볼드 무브를 집중 조명하며 다양한 고객을 제품 체험에 직접 참여시키는 방식이 가전업계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고객 의견은 제품 개선으로 이어졌다. 저시력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LG 컴포트 키트(LG Comfort Kit)'의 정수기 실리콘 커버로 냉수·정수·온수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니어를 위한 'LG 이지 TV' 등으로 접근성 강화 제품도 확대하고 있다.

오준환 LG전자 HSCX기획실장은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누구나 제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 목소리 반영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1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가운데)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LG·한국국제협력단 희망직업훈련학교'에서 열린 제10회 졸업식에서 참전용사 손주인 쌍둥이 남매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LG전자가 지난달 20일 경남 창원 LG스마트파크에서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바다숲 조성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한국수산자원공단 김종덕 이사장, 해양수산부 최현호 수산정책실장, LG전자 최성봉 빌트인·쿠킹솔루션사업부장, 경상남도 박일웅 행정부지사.

3 LG전자가 접근성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고객 참여형 커뮤니티 '볼드 무브' 시즌 2를 운영한다. /LG전자, 뉴시스

에티오피아 학교 설립, 직업교육
현지 청년에 기술전수… 자립 도와
우수 졸업생엔 채용형 인턴 기회도

축적된 기술 활용 자연 생태계 복원
신소재로 해조류 키우고, 수질개선
바다숲 조성 해양생태계 복원 앞장

국내외 사업장 온실가수 배출량⬇
재활용률 97.3%, 폐전자제품 회수
S&P 글로벌 CSA 3년 연속 '톱 1%'
고객 참여 '모두를 위한 가전' 개발

바다숲 복원에 활용되는 신소재 'LG 마린 밸런스'

Step.1 GLASS + WATER

Step.2 무기질이온 생성

Step.3 미세조류·해조류 성장

Step.4 해양생태계 복원

메트로 한줄뉴스

▲FIFA 회장, 비판 여론에도 연임 도전…"바뀐 건 없다"
▲중국 마스터스 대회 3연패… '퍼펙트 우승' 안세영, 밝은 모습으로 귀국 /사진 뉴시스

▲MLB 이정후, 메츠전 4타수 1안타 2타점…김하성은 결장
▲U-18 아시아야구선수권 오늘 개막…일본·대만 "한국은 파워 좋은 팀"

▲U-19 축구대표팀, U-20 아시안컵 예선 A조 1위로 본선행
▲박윤정호, U-20 여자월드컵 첫판서 강호 프랑스와 1-1 무승부